계간지 『인인화락』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인화락 Summer 2016 Vol.15

수원문화재단
Suwon Cultural Foundation

Summer 2016 Vol.15

인인화락

人人和樂

수원문화예술매거진

수원2016 화성 방문의 해

왕의 꿈이 담긴 도시

수원화성



Editorial

다시, 청년문화를 위하여

청년은 언제나 역사와 문화의 주역이었다. 그는 근대화의 담지자였고, 민족이 나가야 할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제시하는 선구자였다. 그는 '개화사상'의 전도사였으며, 자유·인권·민주주의 등 근대적 가치의 전파자이기도 했다. 모던 보이 오빠들과 나혜석 같은 신여성들이 바로 그들이다.

20세기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바꾼 '68운동'의 진원지도 청년이었다. 68운동, 이른바 5월 혁명도 시작은 매우 사소했다. 남학생의 여학생 기숙사 방문과 기숙사 남녀 왕래를 금지하는 낡은 구습에 항의하던 낭테르대학 학생들의 시위가 프랑스와 세계 전역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갔던 것이다. 이를 통해 낡은 정치문화와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그리고 각종의 차별적 사회제도가 바뀌는 계기가 됐다.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운동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한국의 청년과 청년문화도 만만치 않았다. 개화와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한 모던 보이들과 신여성들, 한국정치사의 흐름을 바꾼 4월 혁명, 청바지 차림에 생맥주를 마시고 통기타를 치며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7080세대들, 90년대 한국대중문화를 주도한 신세대들에 이르기까지 청년은 정치적 저항운동과 새로운 문화적 가능성을 열어 보인 희망의 아이콘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청년들'이 없다. '나노베'와 '롤 게임'에 빠져 지내는 '덕후'들과 노량진 고시원의 불을 밝히는 '공시생'은 있어도 문화의 창조와 변화를 주도할 문화적 실천과 의미의 생산자들이 눈에 띠지 않는다. 극심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엄혹한 상황에서 임시직 알바로 버티면서 반지하방과 고시원, 옥탑방을 전전하는 청년들의 신산한 삶을 그린 김애란의 단편소설들은 그래서 더 실감나게 아프다. 기운 운동장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시대의 프로메테우스는 정녕 없단 말인가.

열여덟 살에 계몽잡지 『소년』을 창간한 최남선, 청년문학의 표상으로 자리 잡은 윤동주, 고등학교 재학 중에 등단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황석영과 최인호, 놀라운 문장력으로 감수성의 혁명을 일으킨 김승옥, 산업화 시대 노동운동의 상징이 된 전태일, 대중음악의 패러다임을 바꾼 '서태지와 아이들'도 청년들이었다. 차별적 지배문화와 이에 저항하는 안티테제로서의 하위문화가 아니라 사회와 문화와 역사를 바꿀 창의적인 젊은 문화가 나와야 한다. 청년문화가 없는 사회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청년과 청년문화가 살아야 우리 문화와 사회가 산다. 그러므로 문제는 다시 청년문화다.

문화지기 조성면 손모음

인인화락

人人和樂
수원문화예술매거진

C o n t e n t s

인인화락은 정조의 '호호부실 인인화락(戶戶富實 人人和樂)'에서 따온 말입니다. '집집마다 부유해지고 사람과 사람들이 화목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위민군주 정조의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인인화락』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54


58


66


10


22


26


42


50

01 Editorial 다시, 청년문화를 위하여 / 조성면

05 특집 문제는 다시 청년문화다
06 특집1 '위험'한 청년을 기다리며 / 문강형준
10 특집2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들의 이야기 - 낭만톡 / 박승현
14 특집3 청년 문화의 종말과 다종다양 문화생태계 / 신현아

18 문화지평 수원 화성(華成)이 세계적 명소가 되기 위한 전제 / 김승국
21 포토스케치 수원연극축제 / 편집자
22 수원국제음악제 미리 만나보는 2016 수원국제음악제 / 정다미
26 북새통 수원전통문화관 세시풍속, 북새통 / 최인애
33 포토스케치 아시아모델페스티벌 in 수원 / 편집자
34 공간탐색 온종일도 거뜬한 미술관 놀이터 – 소다미술관 / 이미솔
38 공연Preview 한 여름밤의 꿈, 수원SK아트리움의 뜨거운 여름잔치 / 김영은

42 예술인열전 '엽기적인 그녀' 곽재용 감독의 귀환 / 안병현
46 인물포커스 사진, 역사의 현재를 논하다 - 안성석 작가 / 민경화

50 골목산책 행궁동 한복 투어 / 한예지
54 수원유람 더위를 날려줄 한여름 밤의 하천 유(流)람 / 서진석
58 담장너머 자연, 예술, 역사, 인간이 만나는 곳 / 이규찬

62 어린이도서관 아이들이 좋아하는 BEST 10 도서 / 송현수
66 문화재단 우수사례 삶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다 - 군포문화재단 / 박찬응
70 문화읽기 로맨스라는 판타지, 혹은 / 류수연
72 잡동사니 고전 인문학 당신처럼 어리석은 이가 또 있구려 / 황미숙
76 책나들이 누가 이 시대를 노래할 수 있는가? / 김희만

78 재단소식

01 **Editorial**
Editorial : Once More for the Youth Culture / Cho Sungmyeon

05 **Special Features**
The Issue is Youth Culture Again
Awaiting Dangerous Youth / Moon Hyongjun
Stories by the Youth, for the Youth, and of the Youth - Nang Man Talk / Park Seunghyun
The End of the Youth Culture and Diversity of the Cultural Ecosystems / Shin Hyeona

18 **Art&Space**
Proposition for Suwon Hwaseong Fortress: Becoming a World Famous Site / Kim Seungkook
Suwon Theater Festival / Editor
A Preview of 2016: Suwo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 Jung Dami
Buksaetong: A Seasonal Custom Event of Suwon Traditional Culture Center / Choi Inae
Asia Model Festival in Suwon / Editor
Art Center as a Good Play Site - Space of Design and Architecture (SoDa) / Lee Misol
A Summer Night's Dream, the Hot Summer Festival of Suwon SK Atrium / Kim Youngeun

42 **People**
"My Sassy Girl "Director Kwak Jae-yong's Return / Ahn Byunghyun
Photos of Historical Events – Artist Ahn Sungseok / Lee Hyungbok

50 **Sightseeing**
Hanbok-Clad Tour of Haenggung-dong / Han Yeaji
Cool Summer Night River Tour / Suh Jinseok
The Place Where Nature, Art, History, and Man Meet / Lee Kyuchan

62 **Story**
Children's Best Ten Favorite Books / Song Hyunsoo
Pulling Down the Boundary of Life and Arts - Gunpo Cultural Foundation / Park Chaneung
Romantic Fantasy, or / Ryu Suyeon
There Is Another Fool Like You / Hwang Misook
Who Can Sing This Age? / Kim Heeman

78 **SWCF**
Foundation News



표지이야기
여름은 음악의 계절이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도 푸른 대지의 녹음도 음악의 좋은 무대가 되어준다. 수원에서는 〈야夜한음악회〉, 〈수원국제음악제〉, 〈수원재즈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음악 공연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무더위에 지쳐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 공연장으로 나와 음악과 함께 더위와 스트레스를 날려 보는 것이 어떨까?
〈그림 김상인〉

수원문화재단 인인화락
통권 15호(비매품)
발행 2016년 6월 15일
등록번호 경기 바 50071
등록일 2012년 11월 14일
간별 계간
ISSN 2287-7479
발행인 김승국
편집자문 김희만 박설희
편집장 조성면
편집기획 기획홍보팀 한예지
편집위원 송현수 김영은 정다미 엄주용 최인애
발행처 수원문화재단
주소 442-03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전화 031-290-3600
홈페이지 www.swcf.or.kr
디자인·인쇄 경인M&B

수원문화재단
Suwon Cultural Foundation

수원 2016 화성 방문의 해



2016 아동극 기획공연

신나는 꿈나무 동화마당

매주 목요일 ! 아이들을 위해 화성행궁에서 펼쳐지는 공연

7~8月 (목) 저녁 8시

관람료 | 화성행궁 입장료 (미취학 아동 무료입장) **장소** | 수원 화성행궁 유여택 **주최** | 수원문화재단 Suwon Cultural foundation

문의 | 031-290-3633 * 작품정보는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Special Features

문제는 다시 청년문화다

특집 1 | '위험'한 청년을 기다리며

특집 2 |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들의 이야기 - 낭만톡

특집 3 | 청년 문화의 종말과 다종다양 문화생태계

Special Feature 특집 1

‘위험’한 청년을 기다리며

글 문강형준 문화평론가/중앙대 교수 그림 헤리안

‘청춘’(靑春)의 이미지는 문자 그대로 ‘푸른 봄’이다. 자주 쓰이지는 않으나 청춘과 유사한 단어인 ‘방세’(芳歲) 역시 ‘꽃 같은 세월’이라는 뜻이다. 청춘이 ‘봄’이나 ‘꽃’의 이미지를 가진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봄은 겨울에 한시적으로 죽어있던 생명이 새롭게 탄생하는 계절이다. 영어의 ‘spring’도 동일하게 재생, 부활, 시작 등을 의미한다. 당연히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청춘의 봄은 타나토스가 아닌 에로스의 시절이다. 강렬한 생의 에너지를 터뜨리며 사랑의 순간에 모든 것을 거는 에로스의 서사가 청춘들을 주인공으로 삼는 것은 이 때문이다. 뜨거운 사랑을 나눴던 성춘향과 이몽룡은 16세(이팔청춘)였고, 집안의 반대를 넘어 서로를 갈구했던 줄리엣과 로미오는 각각 13세, 15세 언저리였다.





문학평론가 노스럽 프라이는 『비평의 해부』라는 책에서 사계절을 통해 신화의 원형비평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중 봄의 신화를 담고 있는 문학형식을 ‘희극’(comedy)에서 찾는다. 프라이에 따르면, 희극의 전형적 서사는 이런 것이다.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원한다. 하지만 그의 욕망은 이에 반대하는 장애물에 막힌다. 여러 갈등과 반전 후에 플롯의 끝부분에서 젊은 남자는 젊은 여자와의 사랑을 이룬다.’ 젊은 남녀의 사랑을 막는 장애물로 흔히 등장하는 인물은 아버지 혹은 나이 든 남자다. 여기서 아버지와 나이 든 남자 등은 기존 사회의 질서를 표상한다. 이들은 모두 젊은 남녀가 갖지 못한 상징인 자산(권위, 명예, 지혜)이나 물질자산(돈, 나이)을 가졌다. 젊은 남녀는 가진 것이 없지만 오직 젊은 에너지의 힘으로 이들의 노회함과 간교함을 끌어내고 결국 자신의 욕망을 성취한다. 새로운 세상을 욕망하는 질서가 기존의 세상을 방어하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희극은 어떤 전복성을 가진다.” 불가피한 운명 앞에서 파국을 기다리는 ‘비극’(가을의 신화)에 반해 봄의 신화인 희극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다시, 시작과 탄생이라는 청춘/봄의 이미지.

청춘의 서사

청춘의 서사가 반항하고 전복하고 혁명을 기도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것은 이 때문이다. 유대교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급진적 설교를 했던 예수, 당대의 체제 전체를 비판하며 혁명적 꼬뮌을 만들었던 성직자 토마스 뮌처, 『공산당 선언』을 통해 지금까지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다시 썼던 맑스와 엥겔스는 모두 이십대 후반에서 삼십대 초반의 청년이었다. 현재의 세상을 있게 한 것은 저 옛날 청년의 목소리라 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질서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청년들은 그래서 고뇌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 비텐베르그 대학의 휴학생 햄릿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어긋난 시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존재를 건 고민에 빠지고 『햄릿』, 17세의 고등학생 홀든 콜필드는 세상의 모든 위선과 거짓을 혐오하여 학교를 나오며 『호밀밭의 파수꾼』, 대학생 영훈은 절망과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쉬운 타협 대신 정처 없이 방황하기를 택한다 『젊은 날의 초상』. 이러한 방황이 때로 죽음과 파멸로 끝난다 해도, 자신이 욕망했던 새로운 질서의 싹은 이미 뿌려져 있다.

청년의 비상과 몰락을 서사화하는 대표적인 소설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다. 주인공 개츠비는 서른 초반의 청년으로, 이십대 중반에 잠시 사랑에 빠졌던 데이지를 잊지 못해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그녀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설을 ‘로맨틱한 남자의 지고지순한 사랑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사실 데이지에 대한 개츠비의 갈망은 ‘사랑’으로만 끝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랑’은 개츠비에게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대한 확신’의 일부일 뿐이다. 다시 말해, 개츠비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계발하고 단련하여 초라하고 소박한 부모와는 다른 사람이 되려는 꿈을 가졌고, 후에 가출을 하고 자신을 뒤바꿔줄 계기들을 만남으로써 진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 부잣집 딸인 데이지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된



개츠비가 이루지 못한 단 하나의 결점이었고, 개츠비는 그 결점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개츠비가 '위대'하다면, 그 이유는 그가 한 여자를 끝까지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을 바꾸겠다는 꿈과 이상과 갈망을 죽을 때까지 믿고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속물들이 넘쳐나던 1920년대 미국사회에서 개츠비는 그런 '순수한' 청년의 꿈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춘의 서사'라는 이름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청년들을 주인공으로 한 많은 서사들에는 어렴풋한 패턴이 있다. 그런 서사들에서 청년들은 기존의 질서를 어떻게든 넘어서서 새로운 자신을 만들고 싶어 한다. 때로는 햄릿처럼 고뇌하고, 때로는 줄리앙 소렐처럼 성공만을 지향하며(『적과 흑』), 때로는 주드처럼 자신만의 길을 고수하려 하지만(『무명의 주드』), 결국 방법은 달라도 공히 개츠비가 그렇듯, 지금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를 창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위험한 계급

고전 문학에 아로새겨진 청춘의 서사들과는 달리 우리 시대 한국의 청춘으로 돌아오면 그곳에 '푸른 봄'은 이미 없는 듯하다. '청년'을 수식하는 단어의 계열에는 대개 '백수', '실업' 등만 남았고, '3포 세대'로 시작되어 '7포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청년들 스스로의 자기호명은 '헬조선'이라 불리는 현실의 지난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의 청춘들에게는 '부재'('실업', '백수', '7포 세대')만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고전 문학에서의 청년 주인공들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려 한다면,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창조'란 오직 '자소설'이라는 냉소적 이름으로 불리는 '자기소개서'(자소서)에서의 과장된 글귀 외에는 없어 보인다.

그런 청춘에 미안했는지 미디어는 '성공'도 하고 '개념'도 있는 이들을 불러다 '멘토'라는 호칭을 달아주고는 청년에 대한 '힐링' 특강을 맡긴다. 이 소위 '멘토'들의 '힐링' 특강은 청년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이야말로 오늘날 청년들을 힘들게 만든 시스템의 문제를 오직 개인 의지의 문제로 환원시킴으로써 청년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주범들이다. 어쩌면 오늘날 미디어는 자본주의 경제가 사람들을 고루 행복하게 만드는 데 실패했음을 가리면서 자본주의 경제의 판타지를 유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기실 오늘날 한국의 청년들이 이토록 무력해진 이유는 자기들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세대가 이제는 거의 상시적이 되어버린 자본주의 경제의 고용부진 상태를 만나 '부재'의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문제는 청년을 루저로 만든 오늘날의 경제 시스템에,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온존시키는 정치에 있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이를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러한 경제–정치의 질서에 저항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프랑스 전역에서 계속되는 노동법 개악 반대 시위처럼 아예 광장을 점령하고 대규모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할 테고, 또 직접적인 저항은 아니더라도 오늘날의 경제와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적 공부를 나름대로 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청춘의 서사' 속에 등장하는 문학 속의 청년들이 그러하듯, 청년은 어떤 식으로든 기존의 질서를 타고 넘어야 하고, 기존의 자신을 뛰어 넘으려 할 때 비로소 '청년'의 값어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청년들이 자신들을 '부재'로만 정의하고 그저 '헬조선'이라는 냉소만을 내뱉으면서, 여전히 스펙을 쌓고 멘토를 찾고 취업에 목을 맨다면, 청년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만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스스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권위에 감동하고 틀 속에서 경쟁하며 자기 몫을 챙기는 청년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은 청년들을 기존 질서가 두려워할 리 없으며, 오히려 질서는 그 청년들을 소모품으로 이용하는 데만 급급해할 뿐이다. 70년대와 80년대의 대학생들은 기존 질서와 정면 대치함으로써 자신들을 대안적 질서를 만들 주인공으로 설정했다. 이들은 '위험'했기 때문에 폭력적 진압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실제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었다. 오늘날 전혀 위험하지 않은 청년들은 연예프로그램에서의 방청객이 되거나 대기업의 소모품 인턴이 됨으로써 기존 질서를 온존시킨다. 역사라는 이름의 노인은 이렇게 청춘의 에너지를 체제유지의 원료로 삼으며 병든 삶을 연장해간다.

이 황홀한 매트릭스를 벗어나 황량한 실재의 사막을 보기 위한 '붉은 약'이 절실하다. 그 붉은 약은 지혜롭고 착한 멘토를 죽이고, 틀에 갇힌 경쟁의 논리를 거부하며, 기존의 질서를 뒤엎고 새로운 질서를 상상하는 급진성을 통해서만 오로지 만들어질 수 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가 없는 봄은 그저 차이 없는 반복이다.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그것은 이미 죽음과 소멸을 기다리는 가을이다. 청년은 봄이고, 봄은 창조고 도약이며, 창조와 도약은 기존의 것과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헬조선의 청년은 위험한 계급(dangerous class)이 되어야 하며, 오직 그럴 때 '헬조선'은 사라질 수 있다.

문강형준 문화평론가. 위스콘신대학교(밀워키) 영문학 박사로, 현재 중앙대와 한예종에서 영문학과 문화이론을 강의하면서, 계간 『문학동네』 편집위원으로 일한다. 우리 시대 대중문화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관심이 있다. 저서로 『감각의 제국』, 『파국의 지형학』 등이, 역서로 『비평가의 임무』, 『광신』 등이 있다.

Special Feature 특집 2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들의 이야기

낭만 TALK

글 박승현 낭만톡 대변인

우리는 왜 불쌍한가

최근 들어 각종 매체에서 '청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그러다보니 청년들을 일컫는 신조어들도 생겨났는데, 헬조선, N포세대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도통 청년들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은 찾아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든 청년에만 집중하고 있는 시각들이 아쉬울 뿐이다. 청년들이 이정도로 불쌍했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보도들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쉽사리 공감하지 못했다. 좀 더 많은 친구들과 '청년'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다. 때마침 수원시 내 청년 공간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SNS로 함께 모여 이야기할 청년들을 찾았다. 그렇게해서 모인 청년들이 어엿 30명.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행궁동 청년들의 거점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행궁낭자·슬리핑테이블·공존공간을 돌아가며 정규모임 21회, 운영모임 20회를 진행했다.

처음엔 수원시 청년 정책과 청년 공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번번이 현실가능성에 대해 마주해야했고 내 얘기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던 탓인지 공감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판단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모인 친구들과 함께 모여 논의해본 결과 '나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소하게 해보자고 정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청년공간 모임이라는 딱딱한 이름에서 말랑말랑한 '낭만톡'이라는 이름도 만들었다. 다음은 낭만톡에서 정한 몇 가지 원칙이다.

첫째, 우리가 이야기 하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공유하자.
둘째, 재미를 추구하자. enjoy가 아닌 pleasure!!
셋째,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자.
넷째,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하자.

낭만톡은 '나'라는 개체를 깨닫고 '나'가 모여 '우리'를 깨닫는 과정이었다. '수원', 청년', '문화'라는 키워드를 갖고 나에 대해 얘기하고, 우리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과정에서 낭만톡의 재미와 의미가 생겨나는 듯했다.

위의 원칙들은 진행하며 발견하는 소소한 단점들을 인식하고 변화를 시도해보자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 중 하나는 개개인의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하다보면 소외되는 이들도 있었다는 점이다. 열려있는 모임이라고 했지만 새롭게 합류하게 되는 친구들은 기존의 친구들과의 온도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모임에서 오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SNS에 공유했고, 이는 또다른 사람들이 합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기록과 공유의 장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네트워킹 모임의 단점은 회를 거듭 할수록 중심 주제가 흩어질 수 있고 결속력이 약해지기 쉬운데, 기록물은 하나의 준거점이 되어 우리 모임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다. 공동체의 경험이 비교적 적은 2~30대에게 서로 돌아가며 기록하고 공유하는 경험은 공동체를 이해하고 만드는 좋은 훈련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청년에 대한 정책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제법 깊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다 좋아한 것만은 아니다. 정규모임에 참가하는 수가 점점 줄었고(초기 회당 30여명 정도가 모였고 60여명이 네트워킹에 참여하고 있음) 최근 적게는 5명, 많을 때는 15명 정도가 모인다. 모이는 숫자가 적어 처음엔 고민을 많이 했다. 새로운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다는 욕구와 규모의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됐다. 시간이 지나 내부에서 기존 네트워킹의 개념을 확장해서 개인의 욕구를 바탕으로 소모임을 만들었고 소소한 소통을 시작했다. 오히려 여기서 만족감을 얻은 친구들이 남아 더 끈끈한 결속력을 만들었다. '콘텐츠'를 공동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누가 말하진 않았지만 이런 콘텐츠가 분명히 더 많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것 같다.





운영회의









1 '행궁낭자'에서 진행된 정규모임
2 '공존공간'에서 진행된 정규모임
3 '오뎅빠'에 모인 청년들
4 '오뎅빠'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다.

할 수 있을까

낭만톡에서 SNS를 통해 온 친구들이 우리가 수원 청년 정책, 청년 공간 등에 대해 토론한 게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과 공간이 현실에서는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수원에서는 사실 '청년'을 대상으로 공동의 주제로써 진지한 이야기가 다루어진 적이 별로 없다. 반대로 청년들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며 나선 적도 없다. 소수의 정치인, 시민단체 활동가, 사회혁신가들의 이슈였을 뿐이다. 이런 토대 위에서 '청년'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스스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자리와 토론의 문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문화를 지원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속가능하고 구체적인 '청년'의 보편성을 담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며 참여 또한 확대될 것이다.

청년 이슈가 대두되는 것은 단순히 현재 일자리와 살림살이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저성장 국면인 이른바 제페니제이션(JAPANIZTION)으로 가고 있다.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도시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될 것이다. 기존 구조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어렵다고 생각한다. 대안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면 도시(마을)·청년·문화·공유의 키워드로 '혁신'을 했을 때만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진짜 혁신은 가능할까.

아직 청년들 스스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 스스로는 느끼고 있으나 청년이슈를 가지고 집단화(창업·단체 등) 하는 과정에서 이용되거나 좌절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했다. 개인의 문제를 국가·도시·마을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포기를 하고 경쟁적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애쓴다. 공동체 보다는 개인의 경쟁(입시·취업)을 교육 받았고 기성 세대보다 공동체를 통해 무언가 이룬 성공 경험이 비교적 적기도 하다. 낭만톡에서는 행궁동에 모여 자기 자신을 인터뷰했고 '엿듣다'라는 주제로 내 비밀 이야기를 마음껏 털어 놓을 수 있는 '오뎅빠'를 기획했다. 처음엔 2달 정도로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는데 우리는 반년이 넘게 모임을 지속하고 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소소한 성공을 이어가고 있다. '문화=예술'이라는 등호로 도시 경쟁력 강화나 지역문화진흥을 이뤄낼 수 없다. 예술은 예술대로의 순수함을 간직하며 발전이 돼야 하고, 문화는 문화 나름대로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한 민주적인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기획된 문화가 아니라 시민들(청년) 스스로의 이야기를 담은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낭만톡 어록

'나'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폭풍 '공감'이 되는 어록이 탄생한다.

"취업을 안 하자니 돈이 없고 취업을 하니 내가 없다_행궁동 I양"
"20대 초반은 대학생만 있나요?_창룡문 근처 사는 J양"
"즐거움이 있어야 관계가 견고해진다_행궁동 잠자는 소공녀"
"관계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한다_누군가"
"관계의 핵심은 놀이가 돼야 한다_누군가"
"청년정책이 이슈가 아닌 핵심이면 좋겠다_낭만톡"

토론 내용

낭만톡은 참여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해 토론을 진행했다. 열기가 있었던 두 가지 토론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취미와 일

일과 취미의 경계선

- 일=취미 : 사회적 질병을 줄일 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돈이 가능한 경우만 가능하다.
- 일vs취미 : 서로의 간섭으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 취미는 삶의 지속성의 상태
- 일(취미) : 일을 위해서 취미가 필요하고, 휴식과 힐링이 될 수 있다.
- 일과 취미 : 구분되게 생각 안해야 된다.
- 취미 없음 : 환경적 영향(경기의 흐름)으로 안 해도 된다.

취미와 일이 같이 지속되려면 시스템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예)취미생활적립금, 스웨덴 비그포르스

취미와 일로써 어떤 걸 경험해야 먹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

연령별 대화

19세	놀이문화를 위한 공간(취미, 동아리 활동 등) 상담 공간
20대 초반	진로고민, 진로선택 spec.(자격증, 대외활동, 학점 등)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용기 다양한 경험
20대 중반	지역 안에서의 공간, 목표와 꿈
20대 후반	이상과 현실의 조화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공간 시간적 여유
30대 초, 중반	돈, 휴식, '선배'라 부를만한 사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엿듣다_오뎅빠

헬조선·흙수저·불황·저성장·자살·불안 등 미디어에 부정적인 단어와 함께 청년이 결합이 된다. '청년'이라는 말 조차도 이젠 부정적이기 까지 하다. 그냥 편히 내 마음을 열어 둘 수 있는 곳. "당신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세요"

수원에서 서식하는 청년 생태계조사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또래 청년들의 삶과 고민, 욕망이 궁금하여 수원에 서식하는 청년 생태 조사를 진행하고자 진행하였다.

https://docs.google.com/forms/d/11C_WsgxEG_kz-pYRT1axi8K-TxQlghNz3L0cxuQciLs/edit?usp=drive_web#responses (결과참고)

낭만톡

낭만톡은 경기도 남부와 수원에 살거나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네트워크다. 2015년 11월 수원시에서 청년 정책과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접하고 SNS를 통해 수원 청년들이 모여 청년과 공간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임을 시작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 다양하듯 낭만톡의 멤버들도 각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칫 공감대가 없는 사람들이 좋은 의미만을 가지고 교류하다보면 재미를 잃기도 한다. 그래서 낭만톡에서는 '문화'를 매개로 다양하고 즐거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때론 묵직하게 때론 가볍게 뭉치고 흩어지고를 반복하고 있다. 비밀이 없는 공간 '엿듣다 오뎅빠', 우리들의 설날 축제 '병신년 풍등 날리는 소리하네', 서로의 재능을 배우고 나누는 '원데이 클래스', 본격 동네 청년들 설문 '2016 수원 청년 생태계 조사' 등 다양한 소모임을 진행하기도 했다.
낭만톡에서 진행 하는 모든 모임은 '공유'를 하고 있으며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중시한다.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즐겁고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행동할 것이다.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아래 주소를 참고하도록!
https://www.facebook.com/suwonchung/

박승현 '삶을 여행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으로 마을 안에서 재미난 것을 기획하고 마을 청년과 여행자들을 위한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중. 그리고 낭만톡 대변인.

Special Feature 특집 3

청년 문화의 종말과 다종다양 문화생태계

글 신현아 來人 commer, 문화평론가

시대를 선도하는 자, 그 이름 청년

청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연상되는가? 청년은 말 그대로 푸르고 젊은 시기이면서 대학의 자유로운 공기나 연애, 치기어린 열정, 문학청년, 정의에 불타는 혈기 등을 환기시킨다.

한국에서 이러한 '청년'의 개념이 생겨난 것은 약 백 년 전의 일이다. 때는 1900년대 초, 당시 조선은 근대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격변의 시기에 시대의 선봉에 설 것을 요청받은 것이 바로 '청년'이었다.



'청년'이라는 말은 1900년대 초에 youth나 young men과 같은 단어의 번역어로써 등장했다.(『문학청년의 탄생』, 소영현, 푸른역사, 2008.) 그런데 '청년'이라 번역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때까지의 조선에는 대체 무엇이 '청년'인지 그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는 아이가 상투를 틀면 바로 어른이 되는 전근대의 세계였으니, 청년은 아이와 어른의 사이를 비집고 탄생한 개념이었다. 그러니 '청년'은 자연히 기존의 봉건적 세계와는 결별하여 새로운 세상을 그리는 새로운 근대적 주체라는 위치를 할당받아 등장하게 된 것이다.

청년들이 이렇게 새로운 세상의 지도를 그릴 때, 지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낳도록 하는 제도술 중 하나가 '소설'이었다. 근대적 소설은 현실의 세계를 핍진하게 묘사하여 새로운 세계를 구현함으로써 기존 봉건적 '구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독서-묵독, 화자-인칭, 독자 등을 불러내었다. 봉건적 세계와 결별하고 근대적 세계를 구상해야만 했던 청년들이 소설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재구성할 수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으리라.

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자유연애라고 할 수 있다. 봉건적 아비가 짝지워준 관계에서 벗어나 근대적 개인으로서 자유롭게 다른 개인과 관계 맺는 것, 그것이 모름지기 신시대의 청년이 해야만 할 것이었다. 동경 유학생이자 대표적 신-청년인 이광수의 장편소설『무정』에서 영채는 아비가 어릴 적에 짝지워준 형식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이 태어나고, 형식과 선형의 자유연애가 그려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청년-소설-자유연애-새로운 세계라는 연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이 놓여있는 이 근대적 연쇄는 이후 백여 년에 걸쳐서 이어져왔다. 이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되면 다시 새로운 청년들이 나타나서 기성세대의 문화를 부정하고 새로운 시대의 선편을 잡을 것을 요청받는다. 그렇게 청년들은 학생운동으로, 민주화로, 포크음악으로 새 시대를 부르짖는다.

청년이여, 안녕!

하지만 이 '청년'은 사실상 어디까지나 이성애자-남성-엘리트의 몫이다.『무정』에서 여성인 영채가 청년이 되기에 적합한 자가 되는 것은 사실상 남성 엘리트인 형식과의 위계 속에서 결정된다.(김효진, 김영민,「계몽 운동 주체의 변화와 "청년"의 구상」, 2009.) 이후 한국의 '학생운동'과 '민주화'의 중심이자 적자임을 자처하는 것 역시 386 남성 엘리트였다. 포크도 청년문화도 사실상 남성-대학생(엘리트)이 '선도'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때, '공순이'들은 라디오를 켜고 그 음악을 따라 흥얼거렸다. 그 흥얼거림은 '청년'의 역사 안에 기록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찬란하게 시작되었던 '청년'의 역사는 지금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 '청년'은 더 이상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나갈 주체로 호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구제대상이다. 여전히 식을 줄 모르는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힐링 산업이 그것을 증명한다. 갖가지 토크 콘서트, 청춘 콘서트, 청년 멘토 등 힐링 산업 속에서의 '청년'은 선도하는 자나 전위가 아니라 환자에 가까워 보인다.

한때 청년들이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 제도술이었던 근대 소설에서도 파열음이 들려온다. 젊은 독자들은 점점 한국 '순수문학'을 읽지 않게 되었고, '순수 문학'이라는 위계를 중심으로 하여 문학청년들의 아비 계승 서사를 이어왔던 '문학장'도 이제 그것을 계승할 '청년'이 없어 계토화되어간다.

연애 역시도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삼포세대(연애/결혼/출산의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비혼' 등은 이제 너무 흔한 말이 되었다. 연애도 혁명도 하지 않는 이 젊은 세대를 두고 기성세대들은 걱정이 많다. 20대가 투표를 하지 않아서 나라가 이 꼴이라고 책임전가를 하거나, 어떻게 하면 결혼율과 출산율을 늘릴지 각종 대안을 제시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어서 '청년'이 되어달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 간단한 문제이다. 역사적 '청년'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리고 청년과 함께 근대적 연쇄 고리를 이루던 '순수 문학', '연애-결혼-출산', '운동'도 끝이 나고 있다는 단적인 사실을 납득해야 한다. 동시에 청년이 사라진 자리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본다. 남성-엘리트가 전위로서 앞서서 나가니 남은 자가 따르며 새 시대로 행진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불가능해지자 '청년'을 중심으로 했던 연쇄 속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들이 여기저기서 무성하게 싹을 틔워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다종다양 생태계

지금의 새로운 생태계에서는 아이돌 팬픽, Boy's Love, Girl's Love 같은 소녀 문화나 만화·애니메이션·동인지·피규어 수집 등의 오타쿠 문화, 무협·판타지·로맨스와 같은 장르소설, 자유로운 플랫폼의 웹소설, 그리고 남녀노소에게 메이저한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웹툰 등이 '공존'한다. 이전에는 '순수 문학'과 '서브컬쳐'와 같은 위계의 구분이 있었다면 이 문화들은 하나가 주도적인 '청년문화'로 자리잡지 않되, 각자의 취향으로서 존중받으면서(이를 '취존'이라 한다) 같은 무게로 공존하는 것이다. 하여 이 다종다양한 생태계에서는 기존의 '문학장'이나 '청년문화'의 안에서는 언제까지나 소수자였던 주체들이 보다 쉽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에 대비되는 감상적이고 연약하고 순수한 독자로서의 '문학소녀'는 아이돌 팬픽을 즐기는 지금의 '빠순이'에게는 당치 않은 것이다. 팬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간의 연애를 상상하며 쓰는 팬픽은 팬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고, 성애적인 내용도 거침없이 다룬다. 그러다 인기를 얻게 되면 작가가 직접 인쇄소에서 출간을 하여 판매를 하기도 한다. 이제 소녀는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이며, 이 생태계 속의 당당한 주체이다.

웹소설의 생태계도 흥미롭다. 웹툰의 경우 일반 투고란에서 연재를 하다 웹툰 플랫폼과 정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프로 작가가 되는 일종의 '등단' 과정을 여전히 거친는데 반해, 웹소설은 훨씬 자유롭다. '조아라(http://www.joara.com/)'라는 유명 웹소설 사이트를 보자. 간단한 가입 절차만 거치면 글을 읽을 수도 있고 자신의 작품을 업로드 할 수도 있다. 인기 작가들은 유료 결제나 정식 출간을 통해 전업 작가가 되기도 한다. 또 서평 코너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작품에 대한 평가나 토론이 자유롭게 오고간다. 누구나 자기만의 지면을 갖고, 그것을 업으로 삼을 수도 있으며, 작가와 독자가 거리를 두지 않는 비평의 장이 함께 연동되는 이 구조는 지금까지 '문학'이 그토록 이론적으로 요청했으나 실패한 것이기도 하다.

퀴어도 이 다종다양한 생태계 내에서는 마냥 '소수자'이거나 터부시되는 존재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조아라나 웹툰 플랫폼인 레진 코믹스(http://www.lezhin.com/) 등의 사이트에서 이성애 로맨스는 BL(Boy's Love), 백합(Girl's Love), TS(성전환물) 등과 같이 그저 수많은 장르 중 하나일 뿐으로 '정상성'이나 '비정상성'과 같은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 장르들은 일종의 판타지로서 현실의 퀴어와 바로 등치되지는 않는다.)

다양한 주체들이 자신들의 생태계를 여기저기에 만들어내는 이 구조에서는 주체들 간의 결속 방식 역시 바뀌게 된다. 결혼 '못'한 미혼을 결혼 '안'하는 비혼으로 바꾸어가는 것이나, 만화·애니메이션 속 인물에게 절절한 애정을 쏟는 오타쿠,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살아가는 '쉐어하우스'나 동거 등은 더 이상 '이상한 것'이나 '문란한 것'이 아니다. 단지 연애-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재생산'이 청년의 책무이던 시대가 끝나고 나타나는 새로운 결속 방식일 뿐이다. 그러니 젊은 세대가 단지 사회복지의 부재나 빈곤을 이유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다는 접근은 일면적이다.

이렇게 '청년 문화'가 사라진 자리에서, '하위'에 있는 문화라고만 여겨졌던 다양한 생태계와 주체들이 새로운 공존의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중이다. 물론 여전히 청년, 청년문화, 문학을 수호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체 저런 것들이 과거의 청년문화와 같은 정치적이고 저항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묻곤 한다. 그럴 때에는 이제 당신이 생각하는 저항과 정치가 끝났을 뿐이라고 대답해주자. 내가 그 정치의 중심이라고 자임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정치적인 주체가 되고, 이전에는 저항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저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성들의 청년 문화에서 들리지 않았던 여성의 목소리가 이 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어느 때보다도 크게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며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새롭게 열리는 이 다종다양한 문화 생태계에서, 청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반갑게 만나자.

신현아 연구모임 아프꼼의 來人커머로 활동하고 있고,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 『내가 연애를 못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인문학 탓이야』(공저)를 함께 썼다. 청년과 문학장의 관계나 서브컬쳐에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는 포스트 휴먼과 소녀 주체의 관계를 연구해보려 한다.

2016 수원 華城방문의 해
시민이 만입실시대 휴먼시티 수원
수원문화재단 Suwon Cultural Foundation

전원경의 예술기행
미술관 옆 음악당
유럽의 미술, 음악, 역사 이야기



6. 24 Fri
오스트리아 비엔나
– 제국의 영광은 스러지고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람스 / 클림트, 실레

8. 30 Tue
스페인 안달루시아
– 이슬람과 아프리카 사이에서
타레가, 알베니즈, 그라나도스 / 벨라스케스, 미네

9. 29 Thu
프랑스 파리
– 보헤미안의 도시
쇼팽, 리스트, 포레 / 드가, 모네, 르누아르

11. 10 Thu
독일 바이마르와 라이프치히
– 독일인의 영혼이 잉태된 도시
바흐, 슈만, 리스트 / 뒤러, 반 에이크, 알트도르퍼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 오전 11:00



전원경
인제대 음악학과 겸임교수
'런던미술관 산책' 저자

입 장 권 전석 10,000원 (만 7세 이상 입장) | 패키지 ~~40,000원~~ → 30,000원 | 공연문의 수원문화재단 031. 250. 5300 / 031. 290. 3533
공연예매 수원SK아트리움 www.suwonskartrium.or.kr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ticket.interpark.com

Art&Space
문화지평



김승국 수원문화재단 제4대 신임 대표이사가 지난 4월 11일 취임했다.
김 대표이사는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교감, 서울시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직을 거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상임부회장직을 맡으며 전국 200여 개 문예회관의 공연 · 전시 · 문화 예술 교육·축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친 예술경영 및 행정 전문가이자 문화체육관광부 한-EU문화협력위원회 국내자문단으로 참여해온 국제적 감각을 갖춘 문화예술 전문가이다.
또한 『쿠시나가르의 밤』 등 시집 4권을 펴낸 중견 시인이기도 하며 지금까지 130여 편의 칼럼을 언론에 기고하는 등 칼럼니스트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김 대표이사는 지난 2007년 까지 '화성재인청 복원사업 추진위원장'으로서 전국의 무형적 문화예술을 핵심적으로 이끌어오는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화성재인청' 복원을 총괄하는 등 수원시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다.
문화예술 전 분야에 풍분한 경륜과 식견을 갖춘 김 대표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수원문화재단과 수원시 문화예술 발전이 기대가 된다.

수원 화성(華城)이 세계적 명소가 되기 위한 전제

글 김승국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진 오창원

정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공포하여 현재까지 문화재 보존관리체계를 갖추면서 문화재를 보호·관리하고 있다.

문화재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景觀的)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문화재는 크게 4종류로 분류되는데 건조물(建造物)·전적(典籍)·서적(書跡)·고문서(古文書)·회화(繪畫)·조각·공예품 등과 같이 고정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유형문화재·음악·무용·연극·공예기술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 민족의 흥과 멋이 살아 숨 쉬는 무형문화재, 사지(寺址)·고분(古墳)·궁지(宮趾)·경승지(景勝地)·희귀 동식물·광물·생성물과 같은 기념물,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器具)·가옥 등과 같은 민속자료로 나누어진다. 문화재는 관리 주체에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나누어진다.

UN의 교육·과학 특별기구인 유네스코(UNESCO)가 세계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 일이고, 무형문화유산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한 것에 비해 한국은 이 분야에 일찍 주목하였으며, 한국의 문화재보호제도는 1993년 142차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각 회원국에게 그 제도를 권장하는 안으로 채택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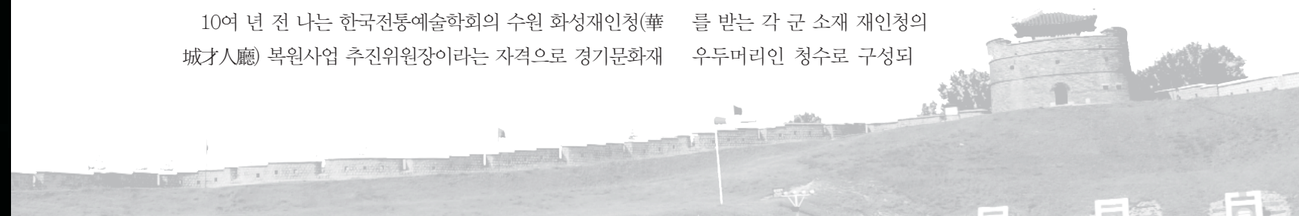
10여 년 전 나는 한국전통예술학회의 수원 화성재인청(華城才人廳) 복원사업 추진위원장이라는 자격으로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3년에 걸쳐 관련 학자들과 함께 학술회의를 하며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華城) 내에 소재하였던 화성재인청 복원을 촉구한 적이 있었다.

학술회의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수원시의 노력으로 수원화성(華城)의 외형은 온전히 복원되어 일찍이 199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나 진정한 문화유산의 복원은 유형과 무형의 복원이 함께 어우러져 복원되어야 그 가치가 있는 것인데 수원 화성은 무형유산의 백미에 해당되는 화성재인청의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때의 학계 시도는 당시 수원시에 수용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현실은 비단 수원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석굴암과 불국사·창덕궁·남한산성·경주역사지구·백제유적지구 등도 마찬가지로 유형의 복원은 이루어졌으나 무형의 복원은 지지부진하거나 관심 밖인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수원의 화성행궁 앞에서는 화성재인청의 명맥을 잇는 일부 전통연희가 상설 공연되고 있고, 화성에 주둔했던 당대 조선의 최정예 부대 장용영 외영 군사들이 익혔던 군사 무예가 복원되어 화성행궁에서 연행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재인청이란 조선 말기까지 지방에서 활동하였던 직업적인 민간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행정적으로 관장하였던 곳을 말하고 다른 한편 광대청·장악청·신청·풍류방·공인청이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이들 재인청은 경기도·충청도·전라도의 각 군에 두었는데 총수인 대방과 그 아래 각도의 책임자인 도산주, 그리고 그로부터 행정적인 지시를 받는 각 군 소재 재인청의 우두머리인 청수로 구성되



어 있었다.

재인청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재인청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예술성 높은 민속전통예술이 계승 발전되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종교와 철학과 예술을 모두 융합하는 축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이자 우리 문화의 전통적 뿌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도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경기도 유일의 군영인 장위영 외영이 있던 수원 화성을 소재로 했던 화성재인청은 조선시대 예능문화의 모든 정보를 지니고 있었기에 다른 지역의 재인청에 비해 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화성재인청은 한때 4만 여명이나 되었던 경기도 일대 광대들의 예능활동을 관장하고 있던 예술 관리 기구였다. 그리고 이 화성재인청 출신 예능인들에 의해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각종 춤·소리·악기연주 등이 상당히 폭넓기 때문에 이러한 예능들의 연원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화성재인청과 관계되는 여러 사실들이 제대로 발굴·조사 되어야 한다.

재인청의 역사는 조선이 멸망하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단절되었다.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지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재인청의 복원이 운위되고는 것은 문화국민을 자칭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때늦은 감이 있다. 재인청의 복원은 단절되었던 공연예술사의 한 부분을 복원하는 일이며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는 일이다.

화성재인청복원이라는 막중한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깊은 관심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경기도와 수원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 복원사업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해야하며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여 자체 지원은 물론 중앙정부로부터도 지원을 이끌어 내야한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의 화성(華城)은 문화유산적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편이 아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겠지만 수원 화성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지역적 불이익도 있겠지만, 무형적 문화유산의 복원 측면은 가려진 채 단순히 유형의 고건축 복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화성(華城) 안에는 조선조 공연예술의 중심이었던 화성재인청이 있었다. 화성재인청의 다양하고 예술성 높은 공연예술이 수원의 화성과 함께 복원되어 국민들에게 보인다면 수원 화성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이자 관광 명소가 될 것이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국민적 관심은 물론 세계적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조 공연예술사의 중심이었던 화성재인청의 복원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수원 화성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수원 화성은 세계적 역사문화명소이자 관광명소로서 급부상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Art&Space
Photo스케치

제20회 수원연극축제

글 편집자 사진 한아름 기획홍보팀

지난 5월 5일부터 8일까지 '달콤한 연극, 신나는 수원'이라는 주제로 수원연극축제가 펼쳐져 7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축제를 즐겼다. 특히 개막작품인 '그룹 푸하(Gropu Puja)'의 '카오스모스(K@osmos)'는 눈을 의심케 하는 공중 퍼포먼스로 진행되어 어른과 아이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둥근 구조물에 매달려 상공에서 펼쳐진 아크로바틱 퍼포먼스는 실황 연주와 함께 진행되어 광장을 커다란 웅장함으로 채우기에 충분했다.

Art&Space
수원
국제음악제

미리 만나보는

2016 수원국제음악제 08.20 ~ 08.27

MuCom : 음악을 통한 사람들 사이의 소통

글 정다미 축제기획단

2년마다 열리는 수원국제음악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세계적인 음악거장들과 함께 찾아온다.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 동안 열리는 이번 음악제는 음악을 통한 사람들 사이의 소통(MuCom : Music Communication)을 주제로 수원SK아트리움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 독일·프랑스·중국 그리고 한국 등 국내외 정상급 오케스트라단과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펼치는 다양한 공연들은 8일 동안 수원을 국제적인 음악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첫째 날 개막콘서트


예술감독 김대진 (Photo by Taeuk KANG)


지휘자 엔리크 디에메크


피아니스트 유펜창

부에노스아이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엔리크 디에메크(Enrique Diemecke)의 지휘와 국내 최고 오케스트라인 수원시립교향악단의 화려한 앙상블로 2016 수원국제음악제의 서막을 알린다. 남미 대륙을 대표하는 음악가인 엔리크 디에메크와 수원시립교향악단, 그리고 아시아인으로서 벨기에를 기반으로 유럽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유펜창(Yu-Fen Chang)의 하모니는 전 세계 대륙을 연결하여 소통하는 음악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수원시립교향악단

둘째 날 독일 클랑베르발퉁 오케스트라 & 합창단 초청공연


클랑베르발퉁 오케스트라

독일합창음악의 대가 에노흐 주 구텐베르크(Enoch zu Guttenberg)가 이끄는 클랑베르발퉁오케스트라와 합창단(The KlangVerwaltung Orchestra&Chorus)이 수원을 찾는다.

베를린필하모니홀, 비엔나 뮤직페어라인,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헤보우홀 등 유럽 전역의 유명공연장과 주요 페스티벌에서의 연주를 통해 '베를린필하모닉에 비견할 만한(on a par with the Berlin Philharmonic)', '최고 중의 최고(the best of the best)'라는 평가를 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오케스트라는 바흐와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종교음악을 합창과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신에게 바치는 인간의 목소리와 악기의 앙상블이야 말로 가장 고차원적인 음악을 통한 소통이 될 거라 기대한다. 바흐의 마그니피카트와 모차르트의 레퀴엠의 울림 속에서 종교를 초월하여 음악이 주는 신성한 아름다움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피아니스트 박미정과 첼리스트 배기정 초청 '듀오리사이틀'


피아니스트 박미정


첼리스트 배기정

피아니스트 박미정과 첼리스트 배기정이 수원의 음악가를 대표하여 초청공연을 갖는다. 수원에서 태어나 수원소화초등학교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박미정과 피바디 음악대학 동기인 첼리스트 배기정은 2012~2013년 '베토벤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전작품 시리즈'를 기획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고, 이번 수원국제음악제에서 관객들에게 친숙한 명곡부터 20세기 및 최근 작품까지 다양한 첼로소나타를 연주하면서 수원 음악가의 저력을 뽐낼 예정이다.

셋째 날 상하이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챔버앙상블 초청공연


상하이필하모니오케스트라 챔버앙상블

1996년 상하이방송교향악단과 상하이영화음악오케스트라가 통합되어 탄생한 상하이 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창단 이후 중국 내에서 연주와 멤버구성면에서 최고의 명성을 구가하고 있는 중국 최고의 교향악단 중 하나이다. 중국의 스타 지휘자 중 한명인 무하이 탕(Muhai Tang) 상임지휘자를 필두로 젊은 거장 리앙 장(Liang Zhang)을 부지휘자로 맞아 중국 전역 뿐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심포니 콘서트·오페라 연주·발레 연주·영화음악 반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비발디·브리튼·그리드 뿐 아니라 중국작곡가의 곡을 연주하면서 중국 오케스트라만의 특색을 보여줄 예정이다.

넷째 날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지휘자 하이코 마티아스 푀르스터


첼리스트 문태국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챔버 오케스트라이며 세계적인 거장 작곡가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Krzysztof Penderecki)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이 예술고문으로 있는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의 초청공연이 체코 야나첵 필하모닉오케스트라(Czech Janacek Philharmonic) 상임지휘자인 하이코 마티아스 푀르스터(Heiko Mathias Forster)의 지휘로 열린다.

또한 한국인 최초 카잘스 콩쿠르 우승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첼리스트 문태국과의 협연으로 국내 정상의 챔버 오케스트라가 가진 매력을 아낌없이 선보일 예정이다.

다섯째 날 피아니스트 박종훈과 아이자와치하루 초청 '듀오비비드의 Four hands 콘서트'


듀오비비드

부부 피아니스트가 아름다운 호흡으로 한 대의 피아노 위에서 만들어갈 최고의 앙상블이 열린다. 듀오비비드는 이탈리아와 한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종훈과 그의 아내이자 피아니스트인 치하루 아이자와(Chiharu Aizawa)로 구성된 피아노 듀오이다. 2004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가진 데뷔무대를 시작으로 밀라노·로마·구비오 등에서 꾸준한 연주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5년 국내 최초 1피아노 4핸즈로 비발디 사계 전곡을 연주한 '비비드 비발디'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번 수원국제음악제에서는 비발디와 피아졸라의 사계를 동시에 선보여 비비드만의 독창적인 트랜스크립션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여섯째 날 프랑스 파리브라스밴드 초청공연


파리브라스밴드

파리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젊고 열정적인 음악인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된 금관오케스트라 단체인 파리브라스밴드가 수원국제음악제를 찾는다. 다양한 금관밴드로 풍부하고 화려한 기교와 넓은 레퍼토리로 파리와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면서 다수의 팬층을 확보하고 있어 더욱 기대가 크다. 또한 금관앙상블이 들려주는 깨끗하고 웅장한 음색을 특징으로 전 세계 금관음악경연대회에 프랑스 대표로 출전하여 우승을 차지하는 등 저력을 뽐내고 있으며, 이번 수원국제음악제에서 클래식을 비롯한 행진곡·샹송·팝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브라스로 선보이면서 금관악기가 주는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일곱째 날 노부스콰르텟과 피아니스트 손열음 초청 '쇼스타코비치'

젊은 현악사중주, 노부스 콰르텟은 바이올린 김재영·김영욱·비올라 이승원·첼로 문웅휘로 구성된 차세대 솔리스트이다. 오사카·리옹·하이든 등 국제 실내악 콩쿨을 비롯하여 2014년 모차르트 국제 콩쿨에서 우승을 거머쥐면서 대한민국 실내악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13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성공적인 데뷔콘서트를 올린 후 슈바츠발트 페스티벌, 리스본 체임버 뮤직 페스티벌 등 저명한 해외 음악페스티벌에서 초청을 받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번 수원국제음악제에서 한계없는 테크닉과 뛰어난 통찰력으로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함께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을 선보인다. 절정의 기량을 지닌 젊은 거장들이 선사하는 최상의 하모니로 가득 채워질 8월의 금요일 밤이 기대된다.


노부스콰르텟


피아니스트 손열음

여덟째 날 소프라노 임선혜 독창회 '한국 가곡의 향연'


소프라노 임선혜

고(古)음악 최고의 소프라노로 불리는 소프라노 임선혜의 가곡 독창회가 열린다. 서울대와 독일 칼스루에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1999년 필립 헤레베헤가 지휘하는 모차르트 'C단조 미사'의 솔리스트 대타로 출연하면서 유럽무대에 데뷔한 후로 바흐·헨델·하이든을 주요 레퍼토리로 필립 헤레베헤·파비오 비온디 등 고음악계 거장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번 수원국제음악제에서는 수원의 작곡가 이영조의 '소프라노를 위한 세개의 엮은 아리랑' 등 다양한 우리가곡을 노래하여 수원의 음악애호가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폐막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 로만킴 (Photo by Ira Weinrauch)

'21세기 파가니니'라는 수식어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러시아 국적의 한인3세 바이올리니스트 로만킴(Roman Kim)과 함께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이자 수원국제음악제 예술감독인 김대진의 지휘와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2016 수원국제음악제는 수원SK아트리움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외에도 호수콘서트, 콘서트 인 뮤지엄 등 수원시 일원에서 다양한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6 수원화성방문의해를 맞이하여 전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들과 함께 음악의 물결로 수원을 가득 채울 2016 수원국제음악제가 8일간의 놀라운 경험과 음악을 통한 소통 (MuCom : Music Communication)으로 더욱 풍성해진 우리의 여름밤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고 2018 수원국제음악제를 기약하는데 충분히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기대해 본다.

2016 수원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일정

일 시	장 소	공 연 명
8. 20(토) 19:30	수원제1야외음악당	수원시립교향악단 초청 '개막콘서트' • 지휘 : 엔리크 디에메크(Enrique Diemeckae) • 협연 : 피아니스트 유펜창(Yu-Fen Chang)
8. 21(일) 16:00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독일 클랑베르발퉁 오케스트라&합창단 초청공연
8. 21(일) 19:00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피아니스트 박미정, 첼리스트 배기정 초청 '듀오리사이틀'
8. 22(월) 19:30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상하이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챔버앙상블 초청공연
8. 23(화) 19:30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코리아챔버오케스트라 초청공연 • 지휘 : 하이코 마티아스 푀르스터(Heiko Mathias Forster) • 협연 : 첼리스트 문태국
8. 24(수) 19:30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피아니스트 박종훈과 아이자와치하루 초청 '듀오비비드의 Four hands 콘서트'
8. 25(목) 19:30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프랑스 파리브라스밴드 초청공연
8. 26(금) 19:30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노부스 콰르텟과 피아니스트 손열음 초청 '쇼스타코비치'
8. 27(토) 15:00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소프라노 임선혜 독창회 '한국 가곡의 향연'
8. 27(토) 19:30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수원시립교향악단 초청 '폐막콘서트' • 지휘 : 김대진 • 협연 : 바이올리니스트 로만킴(Roman Kim)

Art&Space
북새통

수원전통문화관 세시풍속 "북새통"

글 최인애 전통문화사업부



북새통 1 "입춘방"

수원화성 북문인 장안문 안쪽에 언제부턴가 화성

행궁보다 더 예쁜 한옥 두 채가 들어섰다. 널찍한 앞마당에 텃밭까지 갖춘 이 한옥건물은 왠지 모를 신비감으로 입구에서 주저하는 방문객들도 있지만, 실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우리 전통문화의 교육·체험공간인 '수원전통문화관'이다.

작년(2015년) 3월 30일 개관하여 이제 갓 돌을 넘긴 수원전통문화관은 전통식생활체험관과 예절교육관 두 건물과 주변 공간을 아우르는 통합명칭이다. 교육시설로 건립되었지만 그 아름다운 자태에 이끌려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바로 옆에 조성 중인 한옥기술전시관이 금년 중 완공되고 인근에 한옥건물이 지속적으로 들어서면서 수원화성 내 새로운 관광거점으로서 기대도 크다.

이에 발맞춰 수원전통문화관은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세시풍속 행사를 개관 2년차인 올해부터 매월 지속적으로 진행해하기 시작했다. '북새통'이라는 행사명은 '수원화성 북문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전통문화체험'의 약자이다. 매월 세시풍속에 맞는 주제로 인문학 강의를 비롯하여 전통문화와 전통놀이 체험, 세시음식과 차 등을 직접 만들어보고 시식할 수 있는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단오와 추석, 중양절 등 예로부터 큰 명절은 다채로운 공연과 시민참여 민속놀이 행사를 더하여 더욱 풍성하게 진행된다.

다섯 달 5가지 재미 –
1월의 문배와 입춘방에서 5월의 초파일까지

입춘은 예로부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날로 24절기의 시작이다. 지난 1월 29일 '문배와 입춘방'을 주제로 세시풍속–북새통의 첫 문을 열었다. 유영숙 민화작가를 초청하여 입춘과 문배의 유래에 관한 인문학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8호 김영훈 이수자와 함께 봄을 알리고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문배와 입춘방을 만들었다. 우리 선조들은 이를 집 벽이나 대문에 붙여 새해



북새통 5 '만다라 그리기'



북새통 4 '화전만들기'



북새통 4 '전통놀이체험'

북새통 3 '나무 속대 만들기'



북새통 5 '만다라 그리기'



북새통 3 '전통차 시음'



의 나쁜 기운을 피하고자 했다.

2월에는 대보름 행사가 열렸다. 사찰음식 전문가 지견 스님의 인문학 강의와 오곡밥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오곡밥의 5가지 곡식(찹쌀·차조·붉은팥·찰수수·검은콩)은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날 수원전통문화관을 방문한 체험객들은 직접 만든 오곡밥을 나누어 먹고 우리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화합의 뜻을 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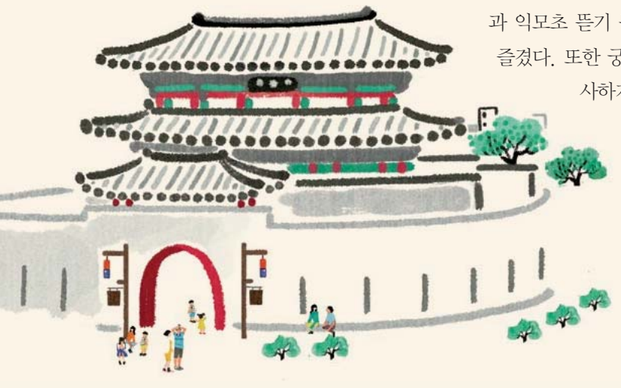
머슴날을 주제로 한 3월의 세시풍속 행사는 전통음식 전문가인 김수영 강사의 강의와 머슴떡 만들기, 나무솟대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머슴날은 본격적인 농사철에 앞서 한 해의 농사를 책임질 머슴들을 격려하고자 음식과 술을 양껏 대접한 날이다.

4월에는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찾아온다는 삼짇날 행사가 열렸다. 마른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고 산과 들에 꽃이 피는 이 시기 옛 선조들은 무리를 지어 화전놀이를 갔다. 화전은 쌀가루 부침개에 꽃잎으로 모양을 낸 떡으로 수원전통문화관 방문객들도 야외에서 화전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임시공휴일의 지정으로 황금연휴를 맞이했던 5월의 첫 주말에는 초파일 행사가 진행됐다. 수원전통문화관 앞마당에서는 만다라 그리기·미나리강회 만들기·연꽃차 시음 행사가 열려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일곱 달 7가지 도전 – 6월 단오부터 12월 동지까지

음력 5월 5일인 단오는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 하여 설, 추석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였다. 예부터 단오에는 많은 의례가 행해졌는데 창포에 머리감기, 쑥과 익모초 뜯기 등의 풍속과 함께 그네뛰기·활쏘기·씨름 등의 민속놀이 등을 즐겼다. 또한 궁중에서는 제호탕·옥추단·애호·단오부채 등을 신하들에게 하사하기도 했다. 6월 3일부터 5일까지 수원전통문화관에서 3일간 진행되는 세시풍속–북새통 단오행사는 전통문화한마당을 더하여 단오의 명성에 맞게 대규모 행사로 진행된다. 단오의 세시음식인 제호탕과 수리취떡 체험행사, 매실차 시음



부스가 운영되고, 단오빔 체험과 인문학 강의도 준비되어 있다. 4일과 5일, 수원전통문화관 앞마당에서는 전통적으로 단오의 대표행사였던 씨름대회가 개최된다. 풍물굿패의 신명나는 공연과 일반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어린이부·여성부·남자청년부 그리고 장년부의 우승자를 가린다. 대학 최강 경기대학교 씨름부의 시범경기와 탈락자들의 팔씨름 대회도 이벤트로 진행된다.

한여름에 진행되는 유두(7월)와 칠석(8월)행사에는 더위를 쫓는 음식과 차를 체험해 볼 수 있다. 1년을 손꼽아 기다리던 9월 한가위 추석에는 수확의 계절에 걸맞는 수원전통문화관만의 특별한 음식이 준비된다. 우리 민족의 대표 명절인 만큼 전통공연과 줄다리기 대회도 개최된다. 10월에 개최되는 중양절 행사는 수원화성문화제와 연계하여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안택고사, 12월에는 동지로 1년 12달 행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사가 중심이 되었던 선조들에게 계절의 변화는 삶의 근본이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반복되어 전해오는 세시풍속은 농경사회에서 필요한 협동과 단합을 위한 축제였다. 이를 통해 우리 선조들은 고단했던 농사일 가운데 활력소를 찾았고, 이웃과 그리고 자연과 교감을 나눴다. 농업이 산업의 중심에서 벗어나면서 세시풍속의 의미와 행사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만 자연의 이치 속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은 그대로이다. 바쁜 일상 속에 수원전통문화관에서 삶의 쉼표와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즐겨보면 어떨까.

▶ **수원전통문화관 세시풍속 '북새통' 행사일정**
(2016년 6월 이후)

행사일정	세시풍속 (실제일자)	주요행사	전통문화한마당
6. 3(금)~5(일)	단오(6. 9)	수리취떡, 제호탕, 단오빔, 인문학강좌	풍물굿, 씨름대회
7. 14(목)~16(토)	유두(7. 18)		
8. 9(화)	칠석(8. 9)		
9. 8(목)~10(토)	추석(9. 15)		탈놀이, 줄다리기대회
10. 6(목)~8(토)	중양절(10. 9)		풍류/퓨전국악 공연
11. 1(화)~2(수)	안택		
12. 16(금)~17(토)	동지(12. 21)		

※ 일정 및 주요행사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북새통5 '미나리강회 체험'



북새통4 '삼짇날'



북새통2 '세시음식체험'



Art&Space
북새통

Buksaetong:

A Seasonal Custom Event of Suwon Traditional Culture Center

Written by : Choi In-ae(Traditional Culture Business Division)

Two beautiful Hanok (traditional Korean houses), which were considered as more elegant looking than the Hwaseong Haenggung Fortress, were previously erectedinside Suwon Hwaseong Fortress near the Janganmun gate. The Hanok building, which even features an expansive front yard and a small-plot field, exudes a certain amount of mysterious aura, thereby leaving the visitors hesitant in entering the place. However, the buildingis open to the public, and it houses the Suwon Traditional Culture Center (STCC), where traditional Korean culture education and experience programs are offered.

STCC has just turned one year since its opening on March 30, 2015. It accommodates the traditional lifestyle experience center, etiquette education center, and surrounding areas. STCC was originally intended for a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facility, and it has attracted a steady number of visitors with its beautiful attractions. The Hanok Technology Exhibition Center is currently being built, and it is scheduled for completion within this year. These structures are continuously being built in the surrounding areas, and they are expected to become the new tourist hub within Suwon Hwaseong Fortress.

In line with such developmentthis year, STCC has decided to hold the seasonal custom event every month in order to promote the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to stimulate thevisitors' curiosity. The event known as "Buksaetong" (literally, "hustle and bustle") comes from the acronym of the Korean expression of a new traditional culturalexperience at the northern gate of Suwon Hwaseong Fortress. Each month, STCC presents lectures on humanities that are suitable for the monthly seasonal customs, traditional culture, traditional game experience events, customary food, and the making and drinking of tea. Major traditional seasonal holidays, including Dano, Chuseok, and Jungyangjeol, will feature brightly colored performing events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folklore games.



Mandala drawing

Five Fun Activities in Five Months – Munbae and Ipchunbang (Spring Entry Message) from January to Buddha's Birthday Holiday in May

Ipchun, the spring commencement date, is the first part of the 24 sub-seasons of the year in celebrating the new year and leaving behind the previousone. In January 29, we held the seasonal custom event of Buksaetong with the theme focusing on Munbae (originally known as the "royal paintings granted to the subjects") and Ipchunbang (spring entry message). We invited the famous cartoonist Yu Yeong-suk to give lectures on Ipchun and Munbae. Together with the Intangible Heritage No. 38 course graduate, Kim Yeong-hun, we crafted Munbae and Ipchunbang to welcome the spring season and give our best wishes for the whole year. Our forefathers posted Munbae and Ipchunbang on the house walls andgates in order to expel the evil spirits and welcome a new year.

In February, we celebrated the Full Moon event, whereinthe temple food specialist Buddhist Priest Jigyeon delivered lectures on humanities, together with the making of Ogok-bap (five-grain rice). The five grains of Ogok-bap (glutinous rice, glutinous millet, red adzuki beans, glutinous sorghum, and black soybean) symbolize a prayer for an abundant harvest. The visitors of STCC shared their own cooked Ogok-bap and paid their tribute toour forefathers' harmonious spirits.

The March seasonal event theme of Farm Servants' Day featured the lectures by traditional food specialist Kim Su-yeong, the making of Meoseom-tteok (rice cake of servants), and the making of wood poles with a bird atop it, which symbolizesthe act of praying for best wishes. On Servants' Day, villagers hold a feast prior to a full-swing farming season in order to encourage the farm servants, as well as offer them plenty of food and liquor.

The April event featured Samjitnal Day, where in the swallows returned to the country after migrating to the warm southern region. During this time, when the trees sprouted new leaves and the flowers bloomed in the mountains and fields, the Korean forefathers joined the Hwajeon-nori game in groups. Hwajeon is a rice pancake with flower patterns. The visitors of STCC tried to make Hwajeon outdoors.

On the first golden weekend holiday of May, along with a temporary holiday, an event was held to celebrate Buddha's Birthday in the frontyard of STCC where in events, such as Mandara (Buddha) drawing, the making of Minariganghoe (small rolls of boiled dropworts or scallions), and the tasting of lotus tea, appealed tomany citizens and tourists.

Munbae(文俳) drawing



Humanities class



Seven Breathtaking Events in Seven Months – From Dano Holiday in June to Winter Solstice in December

Dano Holiday falls on May 5, according to the lunar calendar. It is the day with the strongest Yang spirit, thereby making it one of Korea's three major traditional holidays, together with the Lunar New Year Day and Chuseok holiday. Many events, such as washing the hair in aniris-soaked water, picking of mugwort and motherwort, swing riding, archery, and Ssireum (Korean wrestling), among other folklore games, have been executed on Dano Holiday. In addition, the king granted gifts, such as Jehotang (a tea tonic), Okchudan (an herbal medicine), Aeho (a tiger made of mugwort, bamboo, etc.), and Dano fans, to his subjects. For three days (June 3-5) on Dano Holiday, STCC will conduct a large-scale gala event by adding traditional cultural performing events to the seasonal customary event, Buksaetong. The event will feature the making of Jehotang (a tea tonic), the making of Surichi-tteok (rice cake with marsh plant and mugwort), and the tasting of plum tea, as well as trying on Dano costumes and offering lectures on humanities. On June 4 and 5, STCC will hold Dano's signature event, Ssireum (Korean wrestling) contests, on its front yard. Together with the exciting performance of the Pungmulgutpae Troupe, the performing contests will be held in the categories of general people, children, women, male youth, and adults. The Ssireum Club of Kyonggi University, which is well known for its strongest Ssireum team, will demonstrate a Ssireum match, and the losers' arm wrestling contest is also going to be held.

In the middle of summer, Yudu (July) and Chilseok (August) events will be held to allow the participants to taste heat-lowering food and tea. During the Chuseok Holiday event in September, which is the month of harvesting, STCC will present its wide array of unique food. We are going to conduct the representative Korean performing events and tug-of-war contests. In October, we are going to conduct the Jungyangjeol event, in association with the Suwon Hwaseong Fortress Cultural Festival, which will feature diverse experience events and performing events. In addition, we are going to hold the Antaek ritual in November and the Winter Solstice event in December, thereby wrapping up all of the year's events.

For the ancient Korean forefathers, who were engaged in farming, the seasonal change was important for them. The traditional seasonal customs, which were repeated annually, were festivals to encourage cooperation and unity among the agricultural society. They re-invigorated their energy amidst their hard working attitude toward farming, while mingling with their neighbors and enjoying nature. As agriculture gave way to other industries, the seasonal customs are gradually fading, but we still have to live peacefully with our neighbors and with nature. Please visit and enjoy the various traditional events at STCC.

STCC's Schedule for Seasonal Custom 'Buksaetong' Events (June 2016 onward)

Event Schedule	Seasonal Custom Events (Date)	Major Events	Traditional Cultural Performing Events
June 3(Friday)~ June 5(Sunday)	Dano(June 9)	Surichi-tteok rice cake, Jeho tea tonic, Dano costumes, and lectures on humanities	Pungmulgut and Ssireum contests
July 14(Thursday) ~ July 16(Saturday)	Yudu (July 18)		
August 9(Tuesday)	Chilseok (August 9)		
September 8(Thursday)~ September 10 (Saturday)	Chuseok(September 15)		Mask dance and tug-of-war contest
October 6(Thursday)~ October 8 (Saturday)	Jungyangjeol(October 9)		Pungnyu performing event and fusion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November 1(Tuesday)~ November 2(Wednesday)	Antaek		
December 16(Friday)~ December 17 (Saturday)	Winter Solstice (December 21)		

※ All schedules and major events may be subject to change.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in 수원

글 편집자 사진 수원시

지난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in 수원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5월 18일, 수원 화성 창룡문에서는 주요 행사로써 '아시아 전통복 패션쇼'가 개최 되어 25개국에서 선발된 아시아 탑 모델들이 자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수원화성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야외특설무대에서 화려한 패션쇼를 선보였다.

Art&Space
공간탐색

‘안녕?’에서 ‘안녕~’까지, 온종일도 거뜬한 미술관 놀이터

- 소다미술관

글 이미솔 문화기획자 사진 오창원



소다미술관의 트레이드마크인 콘테이너 박스

정체불명의 ‘콘크리트 상자’가 등장했다. 지난 2010년의 일이었다. 뜨거운 불가마를 품은 찜질방이 될 꿈을 꾸며 자리를 잡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상자들이었다. 3년의 기다림을 거친 상자들은 2013년 드디어 임자를 만났다. 뜨거운 여름부터 시작된 공사를 거쳐 이듬해 가을, ‘소다 미술관’으로 시원하게 재탄생했다. 부지런히 지하철을 타고 병점역에서 탄 버스를 내려 도착한 안녕촌은 아직은 아파트 숲보다 초록이 더 많이 보이는 차분한 곳이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 소다미술관을 마주했다. 개발 중인 택지와 그 뒤로 융건릉(사적 제206호)을 배경으로 ‘척’ 서있는 모습이 씩씩해 보였다.

모습만큼이나 시원시원한 ‘소다(SODA)’라는 이름은 ‘건축과 디자인의 공간(Space of Design and Architecture)’을 줄인 말이다. 국내 전시 공간 중에서는 흔치 않게 디자인과 건축을 주제로 하는 곳이 생긴 것이다. 방치된 미완의 건물을 재건축한 탄생의 배경을 고스란히 담은 첫 전시 〈RE:BORN〉으로 출발한 소다미술관은 개관한 해에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받으며 주목받았다. 레드닷은 독일의 iF디자인 상, 미국의 IDEA디자인 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상으로 인정받는 상이다. 개관 전에 세계적인 상을 타면서 인정을 받은 배경 뒤에는 젊고 열정 넘치는 건축가와 기획자들이 있었다. 건축주에게 미술관 개관을 제안한 젊은 건축가 권순엽(디자인 스튜디오 SOAP 대표)와 장동선 소다미술관 관장은 미완의 찜질방 건물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베드타운 화성시에 필요한 내용이 무얼까 고민했다. 결국, 가장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미술관 형태를 선택했다. 동탄 신도시와 개발의 격차가 큰 안녕동에서 주민과 외부 인원을 끌어들이기에 적합한 건축이었다. 미완의 건축물을 다시 손보는 일에서 출발하여 미술관의 기획부터 공간의 가치 창출, 사업적 운영까지 두 사람이 주축이 되어 젊은 직원들과 함께 움직인 전시의 기획력이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

찜질방을 품은 편안한 전시장

튼튼해보이는 콘크리트 블록 속으로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다. 1층의 아기자기한 디자인 숍과 레스토랑의 환한 테이블이 먼저 우리를 반겨준다. 미술관이라기보다는 카페가 딸린 편집숍에 들어온 것 같았다. 디자인 용품과 아기자기한 소품을 파는 매장이 먼저 시선을 사로잡았고, 로비이자 레스토랑에 보이는 탁자와 의자는 문득 안도감을 줬다. 종종 전시장을 찾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미술관의 전시장에 들어설 때는 작은 각오를 하게 된다. 앉을 곳이 마련되는 전시장은 아주 적어서, 앞으로 30분에서 한시간 정도는 ‘전시장에 서 있어야 한다’는 각오로 말이다. 그런데 로비에서부터 넓은 탁자와 의자, 그리고 커피가 보이니 느긋하게 전시를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재입장이 무제한이라니 친절하다. 그날만 무제한인 게 아니라 입장권을 한 번 사면 그 전시가 끝날 때까지 언제라도 다시 입장할 수 있다. 언제라도 입장료 걱정 없이 공간을 찾도록 준비한 배려가 감동적이었다.

높은 천장과 큰 창은 그 배려만큼 공간을 개방적으로 보이게 했다. 찜질방에 가면 창문도 거의 없고 불가마 방·소금 방·아이스 방 등 폐쇄적인 공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높은 층고와 기본적인 벽 구조는 살리되 대부분을 틔워서 열린 공간을 조성했다. 관람 후 커피 한잔을 마음 속에 점찍어 두고 직진하면 가장 넓은 실내공간인 주제 전시장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는 1년에 두 차례 주제 전시가 열린다. 100% 기획전으로 돌아가는 이곳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RE:BORN I - 지어지지 않은 프로젝트의 부활〉과 〈II 해외 유명 건축가들의 꿈의 부활〉이 열렸고, 올해 첫 전시로는 지난 3월 5일부터 〈디자인 스펙트럼: 색색의 디자인을 보다〉와 〈스페이셜 드로잉(SPATIAL DRAWING)〉 전이 함께 막을 열었다. 각각 주제전시관과 야외에서 만날 수 있다.

관람객 중심의 열린 공간

실내 전시공간 만큼이나 소다미술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공간은 로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잔디밭과 루플레스 갤러리(Roofless Gallery)였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과 관람객이 덩그러니 자리하는 일반적인 전시장의 구조와 달리 공간 안에서 오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다. 불필요하게 권위적인 분위기를 없애고, 동네 마실 나가듯 편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장



전시 〈Playground〉의 ‘노천탕속의 사람(2016)’ 노순천 作



소다미술관 내 디자인숍





지붕 없이 오픈되어 있는 공간인 루프레스 갤러리(Roofless Gallery)



미술관 내 카페

동선 관장의 말대로 미술관은 사용자 친화적인 공간이었다. 사용자에게 편안한 공간, 그리고 많은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으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먹고 마시고, 쇼핑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머물다 보면 공간을 이해하고 또 친숙해질 수 있다고 장동선 관장은 설명했다.

레스토랑 뒤로 펼쳐진 야외 공간에는 잔디가 깔렸고 그 너머에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워크숍 공간 '플레이박스'가 자리한다. 아이들의 감각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축·시각 소재의 교육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마음껏 공간을 누리고 뛰어다닐 수 있도록 탁 트인 공간은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편안한 놀이와 휴식을 제공한다.



장동선 소다미술관 관장

잔디밭 옆으로는 천장을 떼어낸 루플레스 갤러리가 있다. 실내인 것 같기도 하고 야외인 것 같기도 한 이곳은 여러 칸이 복잡한 구조를 가진 콘크리트 구조물로 독특한 느낌을 자아낸다. 설치 전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작품이 없을 때에도 벽 사이를 거닐며 산책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공간이었다. 이 공간 자체가 지니는 강한 개성 때문에 이곳에 설치 작업을 펼치는 작가에게는 공간과 협업을 이루어내는 것이 필수 과제이다. 공모를 통해서 신진 작가들에게 주로 이 기회가 주어지는데, 소다미술관의 큐레이터는 많은 작가가 이곳에서의 전시를 통해 한 걸음 씩 성장하기도 했다는 후문을 전해주었다. 신진 작가들은 〈플레이그라운드:MOVEMENT 전〉 공모를 통해 루플레스 갤러리와 루프덱(Roof Deck), 아트테이너(ARTainer) 등에서 전시를 연다.

미술관 공간을 철저하게 사용자의 편의와 즐거움을 위해 구성한 점이 소다미술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예술가와 작품은 뒷전이란 이야기일까? 장동선 관장은 넛지효과(Nudge Effect)를 설명했다. 팔꿈치로 쿡 찌르는 행동에서 출발하는 넛지효과는 대상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작은 데에서부터 '슬쩍' 변화를 유도한다. 어떤 이유로든 미술관을 많이 찾고, 작품과 함께 호흡한 체험은 나중에 더욱 다양한 전시 관람과 작품 구매로까지 이어진다. 예술과 친숙하고 이를 누릴 줄 아는 인구가 늘어나는 거다. 이는 문화 기반의 확대로 직결된다. 결과적으로 작가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아, 그리고 100% 기획전으로 운영되는 주 전시공간과 함께 디자이너와 건축가, 예술가에게 개방되어있는 다양한 공모도 잊으면 안 되겠다. 2층에 신진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전시공간 '디큐브 드링크박스'가 그 몫을 탄탄히 하고 있다.



전시 〈Playground〉의 '드로잉 : 감각공생체 그리고 상상풍경(2005-2016)' 백기은 作

공간과 사람, 공간과 작품의 협업을 꿈꾸다

높은 기획력의 전시를 열기 위한 노력 만큼, 미술관이 담긴 지역과의 소통에도 공력을 기울인다. 애초 지역에 필요한 건축 요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서 출발한 소다미술관은 방문자의 60%가 6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가족들일 정도로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로 스며드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플레이박스'와 그 앞으로 넓게 트인 잔디밭, 시점에 따라 다른 느낌으로 감상할 수 있는 설치 작품이 주가 되는 야외 공간에서는 놀 곳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놀이를 통해 또래와 마주하고 협력하며 자연스럽게 창의력을 길러주고자 한다. 창의력은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극과 또래 간의 소통으로 만들어진다는 생각에서 준비된 정답이 아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미술관의 철학이 고스란히 공간에 반영됐다.

주기적으로 열리는 지역민과의 모임도 마련돼있다. 소다씨씨(CC, Community Connector)는 미술관을 방문했던 주민 자문단이다. 이들과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운영이나 정책에 관한 것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만들어간다. 모임에 참석하는 주부들도 소다미술관과 서로 도움이 되기 위해 적극적이다. 전시나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관해서도 솔직한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이다. 미술관이 주민에게 내용을 제공하는 강연 등이 아니라, 사용자인 주민들이 미술관에 의견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무척 개연성있는 소통의 방향이지만, 그동안 다른 미술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시도이기도 하다.

미술관 안의 공간을 소개하는 장동선 관장은 대화하는 내내 활기가 넘쳤다. 배낭을 메고 활짝 웃던 첫 인상은, 어떤 관람객과 작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변화할 준비가 돼있는 미술관 공간과도 닮아있었다. 공간에 들어오는 어떤 요소들과도 유기적으로 소통하기를 바라는 열려있는 공간. 소다미술관을 찾아가는 모든 분이 밀도 높은 예술과 디자인과 건축이 만나는 현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아울러 그 안에서 공간과 멋진 협업을 만들어 보시기를 기대해 본다.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707번길 30
문　　의 : 070-8915-9127
운영시간 : 10:00-19:00(월요일·명절연휴 휴관)
홈페이지 : www.museumsoda.org

이미솔 문화기획자이자 칼럼니스트. 밀도있는 일과 풍부한 여가를 추구하는 바쁜 한량이다. 일간지와 잡지, 웹진 등에 기고해왔으며 현재 공동체 라디오 마포FM에서 프로그램 '골목한쪽'을 진행하며 방송활동가로 활동 중이다.

Art&Space
공연 preview

한 여름밤의 꿈.

수원SK아트리움의 뜨거운 여름잔치

봄이 왔나 싶었다가 흐드러지는 꽃잎 몇 장 보내고 나니, 어느새 뜨거운 여름이 코앞까지 찾아왔다. 매해 여름이 올수록 점점 더 더워지는 열기에 몸과 마음이 지치기 마련이지만 이 여름의 시작에서 수원SK아트리움이 뜨겁게 준비한 여름잔치를 함께 누리고 즐겨보기를 바란다.

글 김영은 공연기획팀



1. 슈테판 블라다 Stefan Vlada
2. 스페판 피 제키브 Stefan Pi Jackiw
3. 임동혁
4. 마이클 니콜라스 Michael Nicolas
5. 리처드 용재 오닐 Richard Yongjae O Neill

별들의 전쟁
: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 앙상블 디토, 임동혁 내한공연〉

1946년 창단되어 위대한 영혼 베토벤의 정통 사운드를 내는 것으로 정평난,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클래식계의 젊은 거장으로 자리 잡은, '공감'을 모토로 한(우리에겐 리처드 용재 오닐로 더욱 유명한) 4인방 클래식 앙상블 디토, 1996년 국제 청소년 쇼팽콩쿠르, 2003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2007년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등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 석권을 이룩한 피아니스트 임동혁, 그리고 국제 베토벤 콩쿠르 역사상 최연소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 슈테판 블라더가 만나 6월 16일 목요일 19시 30분,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협주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벌인다.

이 만나보기 어려운 대형 프로젝트의 티켓을 아직 예매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를 클릭해 보자.

정형일 Ballet Creative : 〈Untitled〉 춤, 어디로부터 왔는가?

한국 창작발레의 발전을 도모하고 발레 대중화와 공연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 '정형일 발레단'이 춤에 대한 사색을 담은 작품으로 수원SK아트리움을 찾는다.

춤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근원적 탐구 및 연구와 그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춤은 언제부터 어떠한 계기로 시작되었나 하는 물음에서부터 시작되어 춤이 가진 본래의 의미와 모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안무가 정형일은 춤의 기원을 자연의 힘이 인간의 에너지와 감응하면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연의 에너지와 소리, 그리고 그 파동을 '태양-Sunshine-파동-바람-Dive-진동-파장' 등의 7가지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2013년 창작팩토리(발레) 지원 사업 제작지원, 2013년 대한민국 무용대상 best7 수상, 2014년 창작산실 우수재공연으로 선정되었고 평단과 관객들에게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번 공연은 타악기를 라이브로 연주하여 몸과 함께 어우러져 한층 더 뜨거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감각적인 안무와 스타일리시한 무대디자인을 선보이는 안무가 정형일 만의 개성이 한껏 응축된 컨템포러리 발레 '〈Untitle〉: 춤, 어디로부터 왔는가?'는 무용수들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무대세트와 영상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 무대중앙에 기하학적 장치를 설치하고, 타 작품과는 달리 무용수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관객들로 하여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느낌을 선사할 것이다.

관객들은 춤에 대한 집중력으로 자연을 닮은 몸의 움직임을 느끼며 더욱 뜨거운 초여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6월의 마지막 주 일요일인 26일 오후 5시.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자연의 움직임과 하나 되는 인간의 생명력과 에너지, 그리고 나 자신과 춤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움을 느껴보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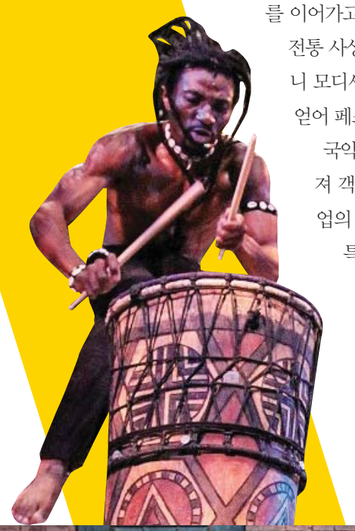
'Untitled' 춤, 어디로부터 왔는가?

드럼이 울리면 당신의 심장이 뛴다 : 퍼포먼스 쇼 〈드럼스트럭〉

뜨거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와 7시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2014·2015년 전국을 뜨겁게 달구며, 전석 매진 신화를 이룩한 드럼-연극 퍼포먼스 쇼 〈드럼스트럭(DrumStruck)〉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2016년 버전은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아프리카 리듬의 진수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

무대와 객석, 연주자와 관객이 소통과 울림 속에서 하나가 되는 드럼-연극 퍼포먼스 쇼 〈드럼스트럭〉은 아프리카 드럼의 신나는 비트와 폭발적인 에너지로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아왔다. 관객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각 좌석에 주어진 아프리카 전통 드럼을 가지고 세계적인 드러머와 이색적인 목소리의 가수들과 함께 하나 되는 공연을 즐길 수 있고, 남아프리카의 주인공이 되는 어디서도 느껴볼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드럼스트럭〉은 지난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처음 선보였고, 세계 최초의 인터랙티브 드럼 공연으로 기록되었으며,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만드는 아프리카 비트와 연기자들의 폭발적인 에너지로 전세계 관객을 사로잡았다. 2005년 뉴욕에서 성공적인 데뷔공연 이후 18개월간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으며 공연을 치렀고, 이후 매년 여름 일본 투어를 진행하는 한편 유럽·호주·중국·베트남 등 세계 각지에서 연일 매진 사태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2013년 8월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Edinburgh Fringe Festival)'에서 아프리카 전통 사상인 '우분투(Ubuntu)'를 테마로 처음 공연하게 되었을 당시 '우분투' 여왕의 역할을 맡은 주연 타이니 모디세이(Tiny Modise)의 열정과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퍼포먼스는 관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페스티벌의 히로인이 된 바 있다.



국악도, 양악도 흉내 낼 수 없는 아프리카 특유의 퍼커션 리듬에 연기자들의 춤과 노래가 함께 어우러져 객석을 들썩이게 할 이 공연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과 가족이 함께 공연장을 찾아 즐기면서 학업의 스트레스를 드럼에 쏟아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온킹 OST 중 가장 유명한 테마곡인 'In the jungle the mighty jungle'로 잘 알려진 남아공의 민요 '인붐베(inbumbe)'를 공연장에서 라이브로 들어보는 기회를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드럼스트럭



총각네 야채가게

꿈꾸는 청춘들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 뮤지컬 〈총각네 야채가게〉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며 젊은층이 너무나 어려운 지금 현실에 "잠자고 있는 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뮤지컬 〈총각네 야채가게〉는 2008년부터 전국을 8년 동안 돌며 30,000여 명의 관객들을 만나고, 중국과 일본까지 진출한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창작 뮤지컬이다.

다니던 광고회사를 그만둔 주인공 태성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다가 우연히 떠난 여행길에서 오징어트럭 행상을 만나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일을 배운 후 야채 장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트럭행상 5년 만에 쇼를 하는 별난 야채가게 〈총각네 야채가게〉 매장을 내고 고등학교 친구 민석,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지환, 버클리 유학파 윤민,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찾아온 철진과 함께 젊음이 넘치는 야채가게를 운영한다. 한편 시간이 흘러 〈총각네 야채가게〉 총각들은 2호점 개점을 앞두고 대기업의 유혹에 흔들리는 민석과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불거진 지환의 방황으로 흔들리게 되는데…….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나'의 꿈이 아닌 '우리'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청춘들의 꿈과 희망을 현실감 있게 그려낸 〈총각네 야채가게〉 총각들은 과연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은 7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7시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청춘들이 이 공연을 즐기며 진정성 있는 삶의 힘과 용기를 얻어 가길 바란다.

수원의 어린이들 다 같이 놀자 : 수다 페스티벌

본격적인 여름방학 시즌을 맞이해 수원SK아트리움에서 두 번째 수다 페스티벌을 준비했다. 수다 페스티벌은 2015년 수원문화재단 공연사업부에서 어린이 페스티벌을 위한 기획공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올해의 공연 일시는 8월 11일(목), 12일(금), 13일(토)이고 다채로운 어린이 공연과 전시 및 체험 활동을 선별해 준비할 예정이다.

방학 동안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해 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어린이공연 축제로의 기틀을 다지며, 수원SK아트리움이 온 가족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수원지역을 대표하는 가족 중심의 극장이 되는 계기가 되어줄 수다 페스티벌의 자세한 일정은 추후 수원SK아트리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 수다 페스티벌 프로그램 일정은 기획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흥 김슬예

일본영화 '바람의 색' 촬영현장에서 스태프들과 곽재용 감독

'엽기적인 그녀' 곽재용 감독의 귀환

글 안병현 자유기고가

곽재용 감독이 〈시간이탈자〉로 돌아왔다. 그가 메가폰을 잡았던 〈엽기적인 그녀〉, 〈클래식〉, 〈무림여대생〉 등과는 사뭇 다른 스릴러 영화다. 〈시간이탈자〉는 지난 3월 13일 개봉 초부터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가도를 달리며 숱한 화제를 뿌리고 있다.

'시간이탈자'는 과거를 바꿔 행복한 현재를 맞는 환타지 영화

곽 감독은 〈시간이탈자〉의 인기비결을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탈자〉는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서 대기업 자본과 배급 시스템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캐스팅도 요즘 핫한 조정석·이진욱·임수정 등 연기와 인기를 골고루 갖춘 배우들이 제 역할들을 잘 해주었고, 제 전작인 〈클래식〉에 대한 향수를 가진 관객들의 기대감도 있었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번엔 제가 처음으로 요즘 대세 장르인 스릴러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시간이탈자〉는 32년이란 시간을 두고 벌어지는 감성 추적 스릴러물로 영화팬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새로운 기법은 아니다. 예전부터 과거의 시간을 돌려서 현재를 바꾸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영화들이 있어왔고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곽 감독은 지난 2003년에 〈클래식〉으로 이미 20년 간극을 두고 엄마와 딸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고, 2008년에 〈싸이보그 그녀〉를 통해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싸이보그 여자친구를 보내주는 설정을 영화로 만든 적이 있다.

〈시간이탈자〉는 CJ 제작팀에서 영화진흥위원회 공모 당선작인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사들여 각색하는 과정이었고, 곽 감독이 그 이후에 합류하여 각색을 하고 감독을 맡게 되었다. 곽 감독은 시간을 넘나 드는 이러한 영화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아무래도 과거의 시간을 돌린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있을 수 없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면 인간은 지나간 후회스런 시간을 바꾸고 싶어 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탈자〉는 과거의 시간을 바꿈으로써 행복한 현재를 맞는 하나의 판타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활동 중인 곽재용 감독

곽 감독은 2008년 〈싸이보그 그녀〉, 2009년 〈무림여대생〉 이후 국내에서 자취를 감춘다. 한국에서 곽 감독의 필모그래프만 보면 그렇다. 그러나 그는 한국 땅이 아닌 외국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지난 2011년에 중국에서 〈양귀비〉를 준비 했었고, 2013년에 〈미스 히스테리〉를 촬영했다. 2014년에 〈시간이탈자〉 촬영 기간에 중국에서 〈미스 히스테리〉가 개봉되어 좋은 성적을 냈고, 2015년에는 일본에서 〈바람의 색〉이란 영화를 촬영했고, 중국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의 중국판 영화의 촬영을 마친 상태고 현재 일본과 중국에서 동시에 후반 작업중이다.



영화 '비오는 날의 수채화' 촬영 현장

현재 〈미스 히스테리〉는 일본에서 일본어 더빙판으로 개봉중이고 극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상태라고 곽 감독은 귀띔한다. 중국에서 일본영화인 〈사이보그 그녀〉가 대대적인 개봉을 했듯이, 현재 일본에서 중국영화인 〈미스 히스테리〉가 개봉 중이다. 현재 일본과 중국은 서로 영화를 주고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곽 감독의 〈미스 히스테리〉가 중국 영화 전용관과 IPTV개봉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수원출신으로 수원 화성은 영화의 좋은 소재

곽 감독은 수원출신이다. 그래서 그의 영화에는 수원 화성 등 상징들이 자주 등장하곤 한다. 그가 만든 거의 모든 영화는 수원에서 촬영했다고 한다. 데뷔작인 〈비오는 날 수채화〉부터 〈클래식〉, 〈여친소〉등등 수원에서 촬영팀이 상주하며 촬영을 했다. 하지만 수원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고 털어 놓는다.

"〈시간이탈자〉의 경우 전주·부산·강원도에서 촬영장소 협조는 물론 도로 차단, 제작비 지원까지 협조를 했지만 정작 수원시에서는 어떤 지원과 협조도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일본에서 〈클래식〉 촬영지를 보기 위해 찾아 왔던 관광객들이 발만 동동 구르다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수원시는 촬영지가 관광자원으로서 역할도 톡톡히 해낸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다룬 '그림자 밟기'

곽 감독은 고향인 수원을 영화 속에 은연 중 내비친다. 현재 기획하고 있는 영화 중 화성살인사건을 둘러싼 남녀 고등학생의 모험,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오는 사랑과 우정에 관한 이야기인 〈그림자밟기〉란 작품이 1980년대 수원을 배경으로 한 영화다. 영화는 예술이면서 동시에 수십억 원의 제작비를 투자 받아서 만들어야 하는 거대한 문화상품이기 때문에 〈그림자밟기〉 기획은 오래 전에 했지만 아직 촬영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삶의 흔적 담긴 '서문 밖의 못난이' 꼭 영화화 할 것

곽 감독은 오랜 시나리오 작업을 통해 완성해 놓은 것이 있다. 바로 감독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린 〈서문 밖의 못난이〉다. 이 작품은 수원 화성 중에서도 자신의 어린시절이 녹아 있는 화서문을 배경으로 한 1960년대의 소시민의 삶을 그려 내겠다는 영화다. 이 작품도 언젠가는 꼭 촬영을 시도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다.

곽 감독은 수원의 화서동에서 태어났고 서문밖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화서문이 어린시절 놀이터였고, 화서문에서 촬영을 하는 영화들을 보며 영화인의 꿈을 키워갔다. 당시 화성은 한국영화 촬영장소로 유명세를 탔었다. 수원시민들과 어린이들이 영화촬영장을 떠나지 못하고 영화에 대한 꿈을 키우던 시절이었다. 곽 감독은 이후 정자동과 권선동, 남수동 등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하겠다. 현재는 수원 영통에 거주하고 있다.

영화 말고 잘하는 게 있느냐고 묻자 곽 감독은 사진 촬영을 꼽는다. 영화 일이 없을 때 곽 감독은 시나리오를 쓰며 시간을 보낸다. 한 때 영화말고 다른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었지만 영화 이외에 별로 잘하는 일이 없어서 영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최고의 취미는 사진 찍는 것 입니다"라고 말하는 곽 감독은 촬영현장에서 연출을 하며 사진을 찍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많은 스탭과 배우들이 영화 한 편 작업하면서 평생 받을 사진보다 더 많은 사진을 선물 받는다고 할 정도다. 전시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하니 기대된다.

곽 감독은 뛰어 다니는 감독으로도 유명하다. 촬영 헌팅 때나 촬영장에서는 걷거나 뛰는 양이 상당할 정도고 이것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덧붙인다.

안병현 수원출신으로 지방 신문사에서 편집국장 및 논설실장을 역임했다. 수원 곳곳을 카메라로 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인성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단법인 한국정신문화계승회 부회장으로 공방거리를 지키고 있다.





영화 '시간이탈자' 촬영현장에서의 곽재용 감독

곽 감독과의 영화에 대한 미니 인터뷰



1983년 〈선생님 그리기〉 이후 지금까지 13작품을 연출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배우가 누구입니까.

"배우와 작품은 감독에게는 자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영화 중에는 성공한 영화도 있고 실패한 영화도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부모가 성공한 자식과 실패한 자식을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과는 아직까지 잘 지내는 편입니다. 꼭 말해야 한다면 가장 최근에 같이 작업을 했고 이 영화를 통해 많은 감정적인 공감을 나눈 임수정·조정석·이진욱일 겁니다. 그리고 제 작품을 위해 온주완과 이기우가 적은 역할인데도 기꺼이 도와주었고 임예진 씨도 저의 전 작품들에 대한 친분으로 특별출연을 해주었습니다. 지면을 통해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이탈자〉 개봉 때 응원 동영상을 보내준 손예진과 차태현에게도 고맙지요."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어린시절 수원 화성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화성에서 영화 촬영을 하는 광경을 많이 봐 왔습니다. 아마 최초로 기억하는 영화는 1964년에 개봉한 한·중합작 영화인 〈달기〉라는 작품으로 지금도 촬영 현장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화서문에서 장안문까지 군사들이 공성전을 하는 장면을 찍을 때 동네 사람들 모두가 엑스트라로 출연을 하거나 구경꾼이 되어 주변이 마치 장터처럼 떠들썩 했었지요. 공심돈 아래 셋팅해 놓은 시체들을 보며 진짜다 가짜다 다투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때 제 막내 삼촌도 엑스트라로 출연을 해서 점심식사로 작은 만두 한 상자를 받았는데, 그걸 먹지 않고 저녁 때 집에 가져와서 가족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극장에서 개봉할 때 스크린에서 그 많은 군사들 사이에서 막내 삼촌을 찾느라 바빴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창시절도 남 달랐겠군요.

"신풍초등학교부터 수성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학교에서 돌아올 때에 간간이 만나는 촬영 현장은 제게 영화인으로 꿈을 키우도록 자극이 된 듯합니다. 저는 영화 구경도 좋아했지만 어려서부터 환등기와 카메라 등 렌즈를 통한 기기들을 좋아해서 카메라를 직접 만들어 현상하기도 하고, 필름을 긁어 환등기 필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명절 때마다 가족들에게 제가 만든 환등기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행사이기도 했을 정도로 영화와 밀접한 소년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장 감동을 준 영화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그렇겠지만 감동을 주는 영화는 단 한편이 아니고 시대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화감독이란 직업을 최초로 느끼게 해 준 영화는 중학교 시절에 본 노만 주이슨 감독의 〈지붕위의 바이올린〉이란 뮤지컬 영화입니다. 스크린 뒤에 누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영화이고 아주 감동적이며 슬픈 영화입니다. 또 중학교 때 본 〈벤허〉란 영화를 보고 많은 감동을 했었고, 〈로마의 휴일〉은 제 금과 옥조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롤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닥터지바고〉를 엄청 좋아해서 몇 년에 한 번 씩은 꼭 다시 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제게 다른 세상을 알려준 영화는 스웨덴의 잉그마르 베르히만이란 감독의 작품들로 〈제7의 봉인〉과 〈화니와 알렉산더〉란 영화를 좋아하고, 일본의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모든 작품들 좋아하고 이태리의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거의 모든 작품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게 인생에 감동을 준 작품은 〈엽기적인 그녀〉입니다. 이 작품을 외국에서 그토록 좋아할 줄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유바리 영화제에서 일본인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본 이후로 감동을 받는 외국 관객들이 제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People
인물포커스

사진, 역사의 현재를 논하다

안성석 작가 인터뷰

글 이형복 화성공연팀장

그의 작업장은 휑함 그 자체였다.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작가의 욕망과 그것을 기다리는 숙명의 공간. 언제나 창작의 현장을 찾는 일은 즐거움이다. 그것이 열정의 용광로와 냉철한 북극의 한파를 오가며 정신을 쑥 빼놓아도 말이다.

고단한 시간적 공력과의 싸움

수원 인계동의 한 빌딩 4층에 자리 잡은 그의 작업장은 미처 정리되지 않은 작업도구와 자료들이 너부러져 있었다. 최근 작업장을 확장하면서 손수 천정을 뜯고 바닥을 보수하는 대단위 공사를 감행했다.

안성석(32) 작가의 도구는 카메라다. 세상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카메라. 피사체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구현하는 카메라. 그러나 그의 작업장에서 마주한 것은 고상한 카메라 보다는 드릴이나 전선, 파이프 등 좀처럼 용처를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 해답은 그의 작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카메라에 담은 데이터를 활용해 중첩된 이미지를 구현한다. 여기에 지난 역사와 현재를 오버랩하며, 때론 몽상적으로 때론 비현실적인 공간을 연출한다.

그는 직접 만든 배를 만들어 한강 탐사에 나섰고, 경주의 첨성대 앞에서 옛사진을 스크린에 투영하기도 한다. 엽서를 꽂는 회전형 장치를 만들어 빙빙 돌리고, 한 사찰의 초파일 풍경이 시간을 업치락 뒤치락하며 영상으로 구현한다. 그에게 작업 방식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사진을 베이스로 컴퓨터를 활용한 시각예술이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작가의 숙명이지만 안 작가의 작업은 고단한 시간적 공력과 다채로운 표현매체의 결합이 담겨 있다. 마치 잡고자 하는 고기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어부의 촘촘하거나 모양이 각양각색인 그물망을 연상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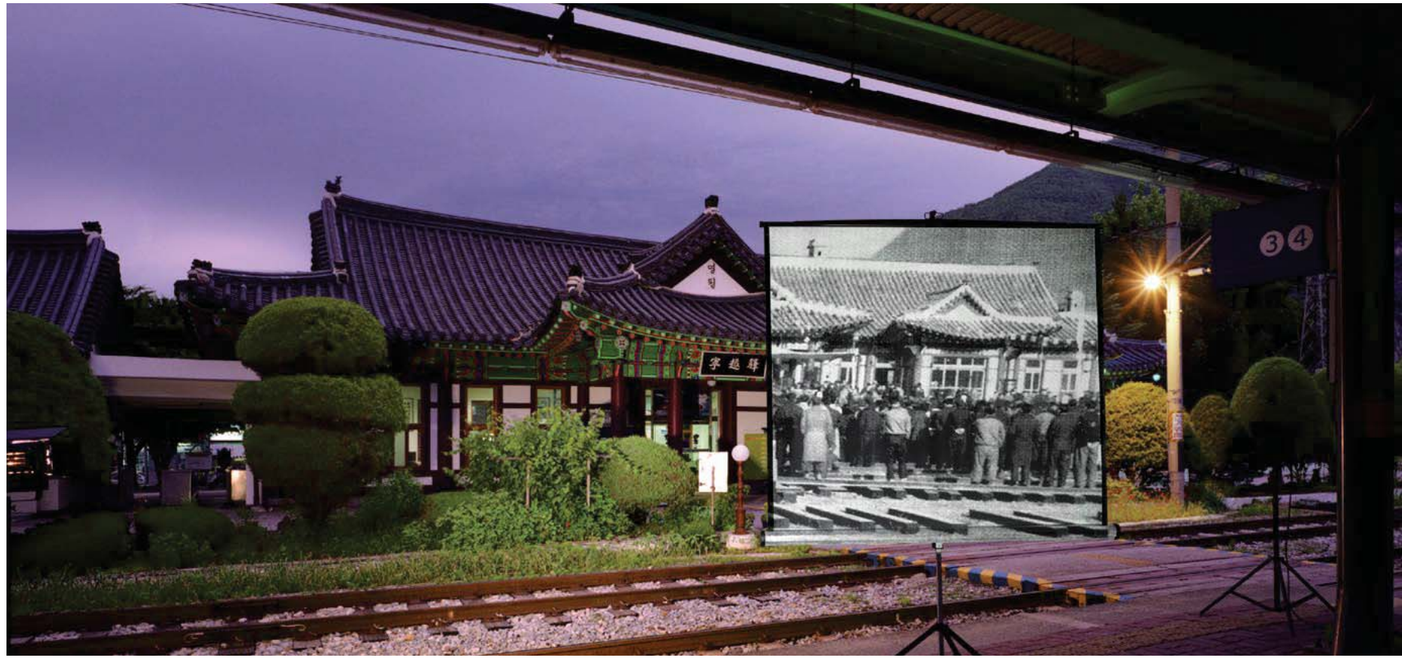
역사의 회복을 작품에 담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의 작업은 역사적 과거와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연결고리 속에서 잊혀져가는 오늘을 과거에서 찾는 미로의 연속이다. 그럼 광화문에 천착했던 작가의 과거 작품으로 되돌아가 그의 의도를 들여다보며 해답을 얻고자 한다.

서울의 대표 명소이자 관광지인 광화문. 안 작가는 2011년 광화문 어가행렬을 촬영한 동영상 〈상호접속〉(Interconnection)을 제작했고,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졸속으로 복원한 광화문 현판 균열과 황금색의 거대한 세종대왕 동상이 등장하는 〈무한성, 그너머〉(Infinity and Beyond)를 선보였다.



안성석 작가의 작업실



historic present023_220x172(cm)_c-print_2011



There_s a one stranger_151x190(cm)_c-print _2011

"군사정권 시절(1968년)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광화문에 눈속임처럼 단청만 칠해 놓았죠. 그 해체된 일부가 현재 서울역사박물관 야외에 전시돼 있어요. 뜨악할 정도입니다. (제가) 역사에 대해 잘 모르지만 역사의 회복을 작업에 담고 싶었어요."

그가 광화문을 찾은 것은 우연히 아니다. 군대 제대 후 유럽의 주요 수도를 여행하면서 정작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던 것.

"수원에 살면서 서울에 올라가면 언제 내려올까 걱정하면서 저녁나절을 제대로 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울서 무엇을 구경할까 궁금했죠. 당시 서울시티투어버스가 처음 생겼고, 아예 외국어 안내책자를 들고 해외 여행객과 함께 투어를 감행했죠."

나름 서울구경에 재미를 느낀 안 작가는 변화된 공간에 옛 사람들이 사라졌음을 인지했다. 이후 흑백사진 등 자료를 수집했고 당시 장소(건축물)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해석하기 시작했다.

"옛 사진 속에 있던 사람들이 제가 있는 이곳에 살았다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아마 제가 찍었던 곳의 사람들도 언젠가는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이것도 또 다른 미래의 앞선 흔적 아닐까 생각했어요."

수면 속의 기억을 부양하다

지난 2015년 수원문화재단이 기획한 유망예술가지원사업에 선정된 안 작가는 올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여 일명 '수원관광엽서'전을 기획하고 있다.

"흔히 관광사진에는 사람들이 없죠. 아마 지역의 랜드마크를 소재로 한 엽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기억과 수원이란 지역에 한정되기보다 급변하는 한국 사회의 이면을 담고 싶어요. 잃어버린 개인의 흔적 혹은 회전하는 기억의 큰 틀의 엽서를 만드는 것이죠."

대체로 그의 작품은 역사의 흔적이 담긴 사진과 동일한 장소에서 현재의 모습을 공존시키며 수면 속의 기억을 부양시킨다. 그렇다고 그가 과거에 집착하거나 현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안 작가는 잊어서는 안 되는 과거의 역사와 현대인들이 인식해야 할 것 혹은, 놓쳐서는 안 될 것에 대해 조용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장르 구분 없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였으면 하는 편이죠. 관심 분야의 철학이나 주장을 구축하지는 않지만 저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기록되는 어떤 역사들이 언어나 다큐가 아닌 동시대를 압축적으로 놓치지 않고 보여주고 싶을 뿐이죠"

그의 작업방식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현존하는 구조물(건축물)을 피사체로 잡고 옛 사진의 일부를 스크린에 투영시켜 동시에 보여준다. 새벽이나 해질녘 묘한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아침의 여명이 밝아올 무렵 선명했던 스크린의 사진은 점차 사라지고 해질녘은 반대의 현상을 가져온다.

한강에 띄운 '랑랑호'는 어떠한가. 경기창작센터에서 정혜정 작가와 손수 만든 이 배는 도심을 관통하는 한강을 오가며 63빌딩과 밤섬 등 주변 풍경을 담았다. 텅 빈 한강에 랑랑호는 유유자적 물결을 일으키며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

"유럽의 도시민들은 강 안팎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데, 한강은 그보다 더 깨끗하고 넓은 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겨울철 한강을 지나다 한강이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하며 랑랑프로젝트를 추진했어요."



historic present002_160x127(cm)_2009

수원화성의 역사성을 작품에 담고 싶어

그런 작가에게도 고민은 있다. 작업과 삶이란 두 축을 고스란히 안고가야 하는 숙명을 지녔기 때문이다. 여러 지원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지만 나름의 삶을 위해 수시로 돈이 되는 일을 병행하고 있다.

"여러 알바를 하죠. 작가들 어시스턴트를 하며 사진도 찍고, 무용단의 공연사진을 찍기도 해요. 제가 영상작업을 배워서 틈틈이 3D모델링도 하구요. 아직 미술시장에 거래될 만한 작업은 자제하는 편입니다. 처음 사진작업을 할 때는 판매 거리가 있었지만, 그런 것을 계속할 경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원사업과 먹고사는 것은 별개니까요."

안 작가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7월말께 포스트 인터넷 미디어 작업을 하는 독일 작가와 함께 2인전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중국 하남성 정주시에서 열리는 국제사진전에 초대받기도 했다.

고향인 수원의 랜드마크인 수원화성에서 펼칠 수 있는 작업의 콘텐츠를 조심스레 물었다. 이전에 작가는 수원화성의 팔달문과 장안문을 오가는 장소에서 시민들을 사진과 영상에 담거나 화성행궁 신풍루 앞에서 오래된 나무를 배경으로 작업한 경험도 있다.

"만약 행궁광장에서 전시를 기획한다면 주변 건물의 전체 혹은 일부를 현수막으로 감싸 영상과 사진을 투영하거나 광장의 한 부분을 가판대 형식의 나무 구조물을 만들어 시간대별로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 안 작가는 화성행궁의 시대별 혹은 사건별 변화상을 담은 영상제작이나 수원의 역사를 재미나게 풀어가는 영상 콘텐츠를 제시하기도 했다.

장르에 구분 없이 자신의 작품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사진과 목공·철공·영상·게임제작 등 여러 부분을 섭력한 안 작가. 호기심 많고 직접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안 작가는 인터넷 이후에 확장된 감각을 기반으로 현재 펼쳐지고 있는 기억의 오류나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무질서한 역사에 대해 치밀한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

안성석 _ 1985 출생
www.SungseokAHN.com

개인전
2014 〈내일의 도덕〉, 동탄아트스페이스, 화성, 한국.
2013 〈Open Path—관할 아닌 관할〉, 워크온워크 오피스, 서울, 한국.
2012 〈사적 경험〉, 브레인팩토리, 서울, 한국.
2010 〈historic present〉, 갤러리 이룸,
사진예술 올해의 작가 지원전, 서울, 한국.
2009 〈Phase space〉, 대안공간 눈, 수원, 경기도, 한국.
〈historic present〉, 서울시립미술관SeMA 신진작가지원프로그램,
공근혜 갤러리, 서울, 한국.

최근 주요 단체전
2016 〈서울바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메이드 인 서울〉, 메이막 아트센터, 메이막, 프랑스.
2015 〈물과 다리 사이의 평셔널 가이드〉_안성석과 정혜정
〈랑랑:WAVEWAVE 1호〉_한강: 서울, 한국.
〈다빈치아이디어〉, 금천예술공장, 서울, 한국
〈우산과 부채〉, 경기창작센터, 안산, 한국.
〈Korean Contemporary Photography Now〉,
wall space gallery, Santa Barbara, USA.

Story
골목산책

한복 X 화성행궁
행궁동 한복 투어

글 한예지 기획홍보팀 사진 nodak



특별한 날에만 입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한복이 최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복을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지만, 전통 한복부터 세련된 디자인의 개량한복 까지 한복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수원화성은 한복과 매우 어울리는 장소이다. 한복을 입고 고즈넉한 성곽을 따라 산책을 하거나 마을 곳곳에 있는 벽화를 배경삼아 '인생샷'을 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는 화성행궁에 한복을 입을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하다는 사실. 한복을 입고 수원화성을 방문하고자 결심했지만 마땅히 입고 올 한복이 없거나 나만의 특별한 한복이 입고 싶다면? 이러한 이들을 위해 화성행궁 근처에서 한복을 만날 수 있는 작은 가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장인이 만드는 고운 선,
'침선공방 고운빔'

선경도서관 가는 길목, 화령전 앞에 오색빛깔 아름다운 전통 한복들이 커다란 창 넘어 인사를 건낸다. '고운빔'의 한복 짓는 이 이정화 대표는 98년부터 침선장 밑에서 교육을 받으며 18년 동안 한복만을 연구하고 생각해온 한복 장인이다. 제 4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한복분야 금메달을 수상한 이 대표는 제대로 된 한복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대표의 고집 덕분에 고운빔 한복은 깐깐한 손님들이 유독 많이 찾는다고 한다. 고운빔에서 맞춘 한복은 평생 A/S 가능하다. 대여는 3일 이상 장기 대여만 진행하고 있으며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한복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복 대여 가격 : 2박3일 대여, 150,000원 ~
수강료 : 주 1회 3시간, 월 150,000원 ~

위 치 :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23번길 28
전화번호 : 031-246-6358
운영시간 : 10:00 ~ 19:00 일요일 휴무
블 로 그 : http://blog.naver.com/gounbim





침선공방 고운빔

아이와 커플로 맞추는
한복 '너나들이'

'너나들이'는 순 우리말로 서로 너니 나니 하고 부르는 허물없는 사이를 의미 한다. 너나들이를 운영하는 김명주 대표는 한복을 통해 사람들과 편안히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공방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의 한복에서는 엄마와 같은 편안함이 느껴진다. 불광불급(不狂不及)이라는 말이 있듯, 한복에 빠져 있다는 김 대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했다. 너나들이에서는 전통한복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생활한복도 만날 수 있다. 한복 맞춤, 강의를 진행하며 대여는 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골목의 유명인사가 된 5,000원으로 즐기는 팔지만들기도 너나들이에서 즐길 수 있는 소소한 체험거리이다.



수 강 료 : 주 1회 2시간, 월 100,000원 ~

위　　치 :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31-3
전화번호 : 010-7676-2262
운영시간 : 10:00 ~ 18:00 월요일 휴무
카　　페 : http://cafe.naver.com/koreanclothes2


너나들이



한복 대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공간
'장금이'

행궁동 공방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장금이는 노래하는 한의사 김오곤의 아내 김명란 대표가 운영하는 전통문화체험센터이다. 예절 전문 강사 출신인 김 대표는 전통문화에 대한 조예가 매우 깊다. 김 대표를 만나면 꼭 차 한 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어 보길. 행궁동 마을 이야기부터 전통문화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 우리 문화를 더욱 재미있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장금이'는 2012년부터 한복체험을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식 만들기 체험과 다도 체험도 진행하고 있으며, 체험 예약이 없을 때에는 공간 나눔을 통해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판소리·시조·민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한복 대여 가격 :
일반한복 시간당 5,000원
고급한복 시간당 10,000원(악세사리 포함)
전통 예절 교육 : 1인 10,000원
전통 다식 체험 : 1인 5,000원(30분 소요)

위　　치 :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31-3
전화번호 : 031-255-3175
운영시간 : 10:00 ~ 20:00 연중무휴
홈페이지 : http://jangem.kr

청년들이 함께하는 한복 대여 카페
'행궁낭자'

'행궁낭자'는 수원화성이 좋아 근처로 이사까지 오게 된 한복놀이단 운영위원 출신 하혜정 대표가 런칭한 한복 대여 카페이다. 전망이 좋은 2층에 위치하고 있는 행궁낭자는 청년 창업 기업이다 보니 마을 청년들이 모이는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 독서 모임, 메이크업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최근 생활 한복 브랜드인 '행궁낭자'를 런칭하여 손수 광장시장에서 공수해온 원단으로 만든 트랜디한 생활한복들을 판매 중에 있다. 한복드레스, 황진이 한복 등 다양한 컨셉과 디자인의 한복을 대여할 수 있으며, 10명 이상 단체 대여시 무료로 화성행궁 가이드도 해주고 있다.



한복 대여 가격 :
일반한복
시간당 5,000원 1일대여 30,000원 ~
고급한복
시간당 10,000원 1일대여 50,000원 ~
판매상품 : 허리치마 40,000원 ~
맞춤한복 200,000원 대

위　　치 :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33, 202호
전화번호 : 070-4779-5080
운영시간 : 11:00 ~ 20:00 연중무휴
홈페이지 : http://행궁낭자.com/




장금이


행궁낭자



Sightseeing
수원유람

더위를 날려줄 한여름 밤의 하천 유(流) 람

글 서진석 그림 헤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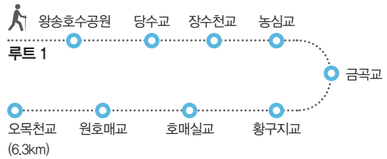
졸졸졸. 시원한 물줄기가 흐른다. 수원의 크고 작은 하천은 우리 주위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 수원에는 시 전역을 흐르는 4대 하천(황구지천·수원천·원천리천·서호천)이 존재한다. 평균 길이 14.6km, 자랑하는 수원의 4대 하천은 우리의 마실 거리, 볼거리가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삼남길, 수원시의 팔색길 조성이 한창이다. 모두 과거부터 이어온 우리의 소중한 길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앞으로도 그 소중함을 간직하자는 취지에서이다. 하지만 삼남길과 팔색길의 산자락을 따라 걸을 때에도, 도심 속 푸른 숲속을 거닐 때에도 졸졸졸 혹은 콸콸콸 거리는 물소리는 언제나 함께한다. 또한 수원시가 팔색길의 많은 부분이 하천을 따라 걷는 루트로 구성되어 있고, 팔색길 중 모수길은 물길의 근원이라 하여 '모수국'이라 불렸던 수원의 이름에서 따온 길이다. 이렇듯 수원은 자타가 공인한 물의 도시이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은 멀리 갈 것 없이 수원의 하천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 버리는 건 어떨까?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곱씹으며 달릴, '황구지천' 유(流)람


솔대교 인근 황구지천




솔대교 인근 팔색길



황구지란 우리말로 '큰 고지가 있는 강'이란 의미이다. 황구지천은 수원 4대 하천 중 가장 큰 길이·폭·면적을 자랑하는 하천이다. 황구지천은 군포시에서 발원하여 의왕시의 왕송 저수지·수원시·화성시·평택시 일부를 아우르며 상류부터 하류까지의 길이만 무려 18km에 달한다. 또한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수원청개구리'가 발견되기도 했다. 인위적인 하천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하천이라는 것이다.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가장 큰 매력인 황구지천은 상류인 왕송호수공원을 따라 내려오다 농심교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금곡저수지 인근의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만날 수 있다. 교육관에서는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이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계절별 꽃·곤충·조류 등의 생태계 체험을 통해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수강생은 예약을 통해 모집한다.(수원시생태환경체험교육관 권선구 금곡동 415, 031-295-4545)

앞서 말했듯 황구지천은 20킬로에 다다르는 길이를 자랑하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이들을 위해 그 폭 만큼이나 넓은 품으로 황구지천은 다양한 루트를 제공한다. 수원여대 인근 오목천교를 시작으로 고즈넉한 시골 전경을 자랑하는 목장교를 거쳐, 높고 큰 고색교를 지나면 서호천과 황구지천이 만나는 지점인 기안교에 다다른다. 서호천, 황구지천 두 강이 만나는 이 지점은 수심도 깊은 편이어서 꽤 많은 어종이 분포한다. 황구지천은 대륙송사리·밀어·붕어·얼룩 동사리 등 12종의 어류가 살고 있다.

이렇듯 황구지천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달리다보면 강의 다채로움에 반하게 된다. 투명함과 깨끗함으로 처음 반하고, 크고 넓은 웅장함으로 다시 반했다가, 끝으로 도심 속 작은 수목원의 전경에 매혹된다. 또한 상류부터 하류까지의 맑음과 탁함 모두를 보게 된다면 우리의 행동이 어떤 환경 변화를 만들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깨닫는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끝으로 짧은 루트를 소화한 후 오목천교로 돌아온다면 바로 옆 고색사거리에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닭발과 쪽갈비집을 찾을 수 있으니 지친 체력을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콤한 음식으로 회복시키는 건 어떨까?

문화 그리고 상처의 치유가 공존하는, '서호천' 유(流)람

흔히들 '서호'하면 서호공원 만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서호천은 북수원 끝자락 파장동산에서 발원하여 화성시와 맞닿은 기안교에까지 이른다. 이 기안교 부근에서는 서호천과 황구지천이 합류하기도 한다.


황구지천과 서호천의 합류하는 모습


율목교에서 바라본 서호천_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제공

sk아트리움 — 노루교 — 화산교 — 서호공원(4.5km)
루트 1


옛 수인선 철로위에서 본 서호천

기안교 — 수인선철교 — 중보교 — 서호공원(6.5km)
루트 2

그런 서호천을 유람하다 보면 자연미와 현대미 모두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북수원의 정자문화 공원과 함께 있는 SK아트리움에서는 각종 문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SK아트리움 http://www.suwonskartrium.or.kr/)

조금 더 내려가면 도심 속 작은 쉼터인 여기산 공원이 좌측에, 봄꽃이 져도 언제나 시원함을 선물하는 서호공원이 우측에 펼쳐져 있다. 상류에서 중류까지만 해도 이미 서호천의 현대미와 자연미를 감상할 수 있는 셈이다.

서호천은 이처럼 우리의 현재를 더욱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만 과거의 아픔과 치유의 역사를 지니기도 한다. 서호공원에서 물길을 따라 자전거로 10분 정도만 내려가게 되면 고색동과 평동을 이어주는 중보교를 만나게 된다. 이 중보교에서 다시 조금만 내려가면 작은 폿말과 함께 잔뜩 녹슨 철교가 펼쳐진다. 바로 '수인선 협궤열차 철로'이다. 수인선은 일제강점기에 이천과 여주지방의 쌀 그리고 경기만의 소금을 인천으로 수송하기 위해 지어졌다. 1937년에 만들어진 수인선은 광복이후 50년 동안 서민들의 발이 되어 주다 지난 1995년 그 소임을 다하고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게 된다. 즉 수인선은 수탈이라는 아픔과 서민의 발이라는 우리 민족의 아픔과 치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수원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수원천 유(流)람

복골천·창사천·문암골천. 다소 낯선 물길이라고 느끼겠지만 수원시민이라면 대부분 한번쯤은 봤을법한 하천이다. 바로 상광교동 인근 광교산 자락의 작은 지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원천은 광교종점의 상부부터 광교저수지, 방화수류정, 새터교, 우시장천에 이르기까지 장안·팔달·권선구 모두를 지나는 수원시의 동맥과도 같은 하천이다.

수원천이 발원하는 광교산은 후삼국시대부터 천년 넘게 이어져온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후백제를 정벌하고 돌아오던 왕건이 광교산의 광경을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는 산'이라고 말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수원천이 품은 두 번째 역사는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화홍문 그리고 용연과 함께있는 방화수류정은 정조 18년에


수원교에서 찍은 수원천

광교산 버스종점 — 광교저수지 — 화홍문 — 광교통닭골목(7.3km)
루트 1


남수문

화홍문 — 남수문 — 유천교 — 버드네고 — 세류먹자골목(4.8km)
루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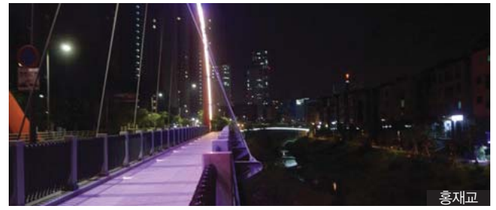
완공되었고 현재는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되어있다.

더운 여름을 피할 안식처는 화홍문의 용연뿐만 아니라 팔달문의 남수문에도 있다. 남수문은 시의 노력으로 밤이 되면 영롱한 빛을 내뿜는다. 역사유산이 현대적 감각을 만나 현재의 수원시민을 만나는 것이다. 수원천의 매력은 먹거리에도 있다. 각종 매스컴에 수차례 알려진 통닭골목이 바로 이 남수문 옆에 위치한다. 개구리 소리가 더운 여름 저녁을 뒤덮을 때 수원천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통닭골목과 세류동먹자골목에서 수원천표 먹방을 찍어보는 건 어떨까?

신도시의 야경을 감상하는,
원천리천 유(流)람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원천. 어쩌면 수원이라는 두 글자 대신 쓰기 가장 좋은 말일지도 모른다. 그런 이름에 맞게 광교신도시에는 수많은 발원지가 존재한다. 여천·쇠죽골천·원천리천 등 10개의 크고 작은 하천으로 이루어진 광교신도시 하천은 각 구간별로 다양한 광경을 가지고 있다. 발원지 부근인 쇠죽골천과 성죽천은 신도시가 주는 고즈넉함을 담고 있다. 이 지역은 새로 지어진 만큼 잘 정비되어 있으면서도 웰빙의 특징을 살려 녹지율이 높아 사람이 많지 않은 편이다. 인파에 지친 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광교 웰빙타운 인근 하천의 매력이다. 잔잔한 매력에 빠져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웅장한 현대미를 자랑하는 홍재교를 만나게 된다. 낮에는 다리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만 밤이 되면 오색빛깔 옷을 입고 일상에 지쳤을 시민들을 위로하기도 한다. 다시 홍재교에서 물길을 따라 10분 남짓 자전거를 타다보면 어느새 신도시의 명물 광교호수공원에 다다르게 된다. 인간의 발걸음이 호수공원에 머물 듯 발원지부터 달려온 쇠죽골천과 여천도 마찬가지로 원천호수에서 잠시 머물다 원천리천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남하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기호에 따라 루트를 연장해도 좋다.

더불어 광교 웰빙타운의 시립 홍재도서관과 광교박물관에서는 이벤트 성격을 가진 다양한 강좌와 정기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 낮에 유람하는 이들은 홈페이지에 들러 스케줄을 확인하길 바란다.(홍재도서관 gh.suwonlib.go.kr, 광교박물관 ggmuseum.suwon.go.kr)


홍재교

쇠죽골천 발원지 — 광교홍재도서관 — 광교박물관 — 홍재교 — 장락교 — 광교호수공원(3.5km)
루트 1


홍재교와 여천

하천의 소중함을 기억해주세요!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는 지역 사회, 시민단체, 수원시, 기업, 학교 등이 참여하여 수원 하천들의 생태계 파악, 정화활동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단체의 '수원시민 하천지킴이'는 지난 봄 1기의 발족식을 진행했다. 지킴이들은 하천 정화와 하천 모니터링, 생태계 교육 수강 등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올 7월말경 한국의 청소년들과 일본의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한일청소년 물포럼'을 개최한다. 위 행사는 에너지로서의 물과 환경적 측면에서의 물에 대해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진행되는 행사로 알려졌다. 끝으로 하천네트워크의 담당자는 "하천은 인간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손길이 닿을수록 생명을 잃어가는 생태계입니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간의 공존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노력이 최소화되어야합니다. 또한 시민의 여가생활과 하천 생태계의 보존은 상호간에 충돌하는 부분이므로 밤에는 조명을 끄는 등의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031-269-4448~9)

서진석 민주주의와 언론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수원시민. 역마살이 끼어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앞으로는 인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싶다.



구라시키 미관지구, 베네세 아트사이트 나오시마

자연, 예술, 역사, 인간이 만나는 곳

글 이규찬 예술지원팀장 그림 헤리안



지난 2월, 4박 5일간 정책 연수차 일본을 다녀왔다. 방문 첫 날은 구라시키 미관지구를 방문한 후, 가가와현청에서 진행된 세토우치 국제예술축제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둘째 날은 예술의 섬이라 불리는 나오시마를 찾아 베네세 하우스박물관과 빈집 프로젝트를 둘러보았다. 셋째 날은 이누지마의 제련소미술관,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진 데시마를 방문하였다. 일본의 지역들이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재생되고 있으며 이를 우리시의 정책 추진에 접목할 수 있는 지 고민해보았다. 이후 내용은 일정별로 방문지를 상술하지 않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된 내용임을 밝힌다.



오하라 미술관



구라시키 미관지구

구라시키 미관지구

- 1969년 일본 최초로 도시 미관지구 개념 도입지역
- 100년이상 된 전통 건축물이 다수 보존 (80여채는 갤러리, 상점등으로 개조)
- 1949년 흰벽보존운동 전개, 1979년 중요건축물보존지구지정, 2010년 전선지중화

역사와 전통을 체계적으로 보존

일본 구라시키(倉敷)는 큰 창고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300여년 전 에도시대부터 이어지는 구라시키 미관지구(倉敷美觀地區)는 80여 채의 쌀 창고를 갤러리·상점·카페 등으로 개조한 곳인데, 일본 최초로 도시 미관지구 개념을 도입하여 100년 이상 전통건축물을 보존하였다. 도시구조의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구라시키 미관지구로 나타난 셈이다. 인구 48만 명의 도시, 구라시키는 연간 4~5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된 것이다.

사람, 환경, 예술, 건축의 융복합형 도시재생

자연 속에서 인간이 예술을 보도록 만든 섬, 나오지마(直島)를 아침 일찍 찾았다. 우선 베네세 하우스(Benesse House) 뮤지엄을 둘러본 후, 지중미술관(Chichu Art Museum)을 둘러보았다.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은 세토 내해의 아름다운 풍치에 미술작품을 담은 건축으로 인간에게 휴식을 취하게 해준다.

2004년에 문을 연 지중미술관은 모두 땅 속에 있다. 이곳에서는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월터 드 마리아(Walter De Maria),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의 작품을 볼 수 있다. 마리아와 터렐은 모네의 작품 〈수련〉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지하공간이 적합하다고 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건축가 안도 타타오(Tadao Ando)가 미술관을 땅속에 만든 것이다.

'이에(家)프로젝트(Art House Project)'는 1997년에 시작되었다. 예술가들은 나오시마의 오래된 마을 혼무라(本村)지구의 오래된 민가를 개조해 현대미술작품으로 바꾸는 시도를 했다. '있는 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라는 나오시마 프로젝트의 신념을 반영하듯 빈집 곳곳에는 그 곳 나름대로 역사와 문화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 현대사회의 경제논리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작품에 표현되었다. 나오시마로 향하는 젊은 층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덩달아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활기를 찾고 있다. 주민의 삶과 공존하는 예술품을 오롯이 만들어 가는 모습이 애틋해 보였다.

또한, 나오시마·데시마·이누지마를 포함한 세토 내해 섬 12곳에서는 '세토우치 국제예술제(Setouchi Triennale)'가 개최 되는데 이를 통해 예술로 지역주민을 끌어안으며 버려진 섬의 부활을 외치고 있다.

- 베네세 하우스 : 1992년 개관, 백남준 등 유명작가의 작품 실내·외 설치
- 지중미술관 : 2004년 개관, 모네, 월터 드 마리아, 제임스 터렐의 작품 전시
- 이우환 미술관 : 2010년 개관, 이우환의 그림과 조각 전시

※ 나오시마의 3대 미술관이자 베네세 아트 사이트 나오시마의 프로젝트 일원으로 안도 다다오가 자연과 환경, 작품에 부합되도록 설계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헌신적인 참여

오하라 미술관(大原美術館) 건립과 구라시키 미관지구의 탄생에는 오하라 마고사브로(Magosaburo Ohara)와 그의 아들 오하라 소이치로(Soichiro Ohara)가 있다. 일본 미술가인 고지마 토라지로(Torajiro Kojima)가 사망하자 유작을 기념하기 위해 방직사업으로 부를 축적한 오하라 마고 사브로는 일본 최초의 서양미술관인 오하라 미술관을 설립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쥬(Noblesse Oblige)를 몸소 실천한 오하라 부자의 지원과 주민들의 협조로 구라시키 미관지구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나오시마를 현재의 '예술섬'으로 탈바꿈한 기업이 있다. 베네세그룹(Benesse Holdings)의 후쿠타케 소이치(Soichiro Fukutake) 전 회장이다. 나오시마의 1/6을 사들여서 미술관을 짓기 시작했고,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버려진 데시마에는 데시마 미술관을 오픈하였다. 또 이누지마에는 제련소미술관(Inujima Seriensho Art Museum)을 만들었다.

- 오하라미술관 : 1930년 일본 최초의 서양 사립미술관으로 개관
  – 사업가 오하라 마고사브로가 건립, 엘 그레코·고갱·로뎅·피카소·모네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원작 3,500점 영구 전시

스타마케팅(권위자)을 통한 인프라 구축 및 축제 개발

아트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있다. 그는 자연환경, 그리고 작가의 작품과도 어우러지는 미술관을 설계하였다. 베네세하우스 뮤지엄에는 백남준·스키모토 히로시·토매스 밸브 등의 작품이 있으며, 지중미술관에 클로드 모네·월터 드 마리아·제임스 터렐의 작품이 있다. 시간상 방문하지 못한 이우환 미술관은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우환 작가의 그림과 조각을 소장·전시하고 있다. 이누지마 제련소 미술관 및 데시마 미술관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데시마 미술관 (photo by Ken'ichi Suzuki)


이에프로젝트 중 하루카 코진의 작품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 (photo by Naoharu Obayashi)


지중미술관


이우환 미술관 (photo by Tadasu Yamamoto)


이누지마 제련소 미술관 (photo by Daici Ano)

- 나오시마 3대 미술관(베네세하우스, 지중미술관, 이우환미술관) 설계
  – 안도 다다오
- 이누지마 제련소 미술관 : 산부이치 히로시(Hiroshi Sambuichi)의 건축물과 야나기 유키노리의 설치미술을 일체화함(2008년 개관)
- 데시마 미술관 : 건축가 니에자와 류에(Nishizawa Ryue)와 미술가 나이토 레이(Rei Naito)의 공동작품, 물방울에 착안한 건축물과 작품(2010 개관)
- 세토우치해 국제예술제
  – 쇠퇴한 섬 지역을 건축과 예술로 융합한 축제, 키타가와 프람(Fram Kitagawa) 총괄 디렉터
  – 2010년 7월 최초 개최(18개국 75명의 작품 설치, 93만명 방문), 3년 주기 개최
  – 2013년도(2회)에는 107만명 방문, 평균 체류일 2.48일, 2박 이상 체류 45.9%
  – 예술제의 경제적 효과 132억엔(1,320억원), 초등학교·중학교 개교
  – 2016년 30개국 200개 이상의 팀 참석 예정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장기적인 문화행정

모든 프로젝트에 주민참여를 이끌어냈다. '나오시마 이에프로젝트'가 그러하다. 섬의 오래된 가옥을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데 작가와 인근 주민이 합심한 것이다. 미야자마 다츠오(Tatsuo Miyajima)의 작품 〈시간의 바다 98(Sea of Time 98)〉은 지역주민과 같이 집을 복원·개조하였다. 집의 내부공간을 연못처럼 만들고 1~9까지 숫자로 만들어진 LED를 방수처리하여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작품화하였다.

주민의 삶과 공존하는 예술품을 설치한 '이누지마 이에프로젝트'에는 작품 제작과정과 유지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구라시키미관지구의 주변 건축물 고도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은 장기적인 안목의 문화행정을 펼친 사례이다. 이렇게 민간 참여와 장기적인 문화행정의 핵심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이 우선임을 명심하자.


나오시마에 전시되어 있는 쿠사마야요이의 빨간호박

Story
어린이도서관

아이들이 좋아하는 BEST 10 도서

글 송현수 바른샘어린이도서관 팀장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읽는 책은 무엇일까?
어린이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았던 결과,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책은 만화책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학습만화'이다. 우리나라 출판 만화 시장에서
학습만화는 전체시장의 6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십 년 전 고려원에서 출간된 이원복의 『먼 나라 이웃나라』(1987)가 큰 인기를 누리면서 대중들에게 학습만화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0년 만화 산업백서』에 따르면 오늘날 학습만화의 대표적인 예림당의 'Why? 시리즈'는 3,000만 부를 돌파했고, 가나출판사의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 신화』는 2,300만 부를, 김영사의 『먼나라 이웃나라』는 1,500만 부, 아울북의 『마법천자문』은 1,300만 부, 서울문화사의 『코믹 메이플 스토리』는 1,100만 부를 기록했다. 이처럼 아이들에게 학습만화는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고 출판시장의 큰 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도서관에서 대출도서 베스트를 뽑아보면 거의 대부분 학습만화이다.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필자에겐 학습만화가 크게 달갑지 많은 않다. 물론 학습만화라고 해서 유익하지 않다고만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정보 전달이 쉬운 학습만화에 익숙한 아이들이 글밥이 있는 책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학습만화의 경우 상업적인 성격이 짙거나 특정 저자의 불분명성, 우후죽순으로 쏟아내는 시리즈물 등 독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습만화가 많기 때문에 도서관에 학습만화를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항상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 도서는 아이들이 열렬하게 사랑하는 학습만화들 사이에서도 당당하게 살아남은(?) 베스트10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5년 한 해 동안 학습만화를 제외한 20번 이상 대출이 된 책들 중에서 상위 10개 도서를 추렸다. 재미있는 현상은 1~3위가 모두 한국작품들이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어린이 창작 글·그림책 출간이 시작 되었고, 길벗어린이·재미마주·보림·마루벌·보리 등 어린이 책만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출판사가 생겨남에 따라 자연스레 양질의 어린이 글·그림책이 나오게 되었다. 특히 전래동화나 과학 지식 중심의 주제에서 창작 그림책의 출판이 늘어나면서 독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조은영 작가의 『달려 토토』, 유주연 작가의 『어느날』은 세계 3대 그림책 상에 속하는 BIB에서 그랑프리,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을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성장을 더욱 기대할 만 하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글·그림책을 더욱 사랑해 주길 바라면서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책 BEST 10을 소개한다.

BEST 1

아드님, 진지 드세요

글 강민경
좋은책어린이



반말 대왕 범수, 나쁜 언어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독서 능력을 향상하는 「좋은책어린이 저학년문고」 제24권 『아드님 진지 드세요』. 아이들이 언제나 예쁜 말만 사용하기를 바라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가득 담은 동화다. 반말 대왕 '범수'의 나쁜 언어 습관을 고치기 위한 엄마와 할머니의 작전이 산뜻하고 유쾌한 그림과 함께 펼쳐지고 있다. 범수는 엄마, 아빠, 누나뿐 아니라, 할머니에게까지 반말을 내뱉는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말꼬리를 흐렸다가 혼났다. 엄마는 범수의 나쁜 언어 습관을 고치기 위해 할머니와 비밀 모의를 했다. 엄마와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온 범수에게 높임말을 하면서 왕자처럼 받드는데…….

BEST 2

싸워도 돼요?

글 고대영
길벗어린이



2학년인 병관이는 키가 작다. 같은 반인 덩치가 큰 우진이는 병관이를 꼬마라고 놀리고 때릴 듯이 겁을 주기도 한다. 병관이는 우진이가 놀리는 것을 참다가 아빠에게 묻는다. 싸워도 되느냐고 말이다. 드디어 병관이가 우진이에게 맞서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BEST 3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글 이용규·한상호
웅진주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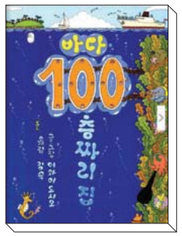


애니메이션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을 그림책으로 고스란히 옮긴 「애니메이션 그림책」 제3권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 점박이, 가족을 구하다』. 한반도의 백악기 공룡 시대를 고스란히 재현해낸 애니메이션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을 그림책으로 읽는다. 머리에 주걱이 달린 카로노사우루스, 하늘을 날아다니는 해남이크누스, 방망이 꼬리를 한 안킬로사우루스, 꼬리보다 긴 목을 가진 부경고사우루스, 그리고 무법자 티라노사우루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타르보사우루스 가족의 막내, 점박이를 중심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17종 80여 마리의 한반도 공룡을 때로는 차근차근, 때로는 움직일 듯 생생하게 만난다.

BEST 4

바다 100층짜리 집

글 이와이도시오
북뱅크



바다 100층짜리 집에는 누가누가 살고 있을까요?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색다른 감각의 숫자 그림책 「100층짜리 집」시리즈 제3탄 『바다 100층짜리 집』. 지상, 지하에 이어 바다에도 100층짜리 집이 있습니다. 바다로 떨어진 인형 '콩이'가 그 곳을 탐험하는 이야기가 담긴 이 책은, 1에서 100까지 숫자를 익히는 동시에 바다 속에 사는 여러 가지 동물들의 특징과 생태까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다 100층까지 깊이 내려가는 기분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책을 아래로 진행하면서 읽을 수 있게 구성한 점이 돋보입니다.

BEST 5

바다탐험대 옥토넛

글 메오미
문학수첩리틀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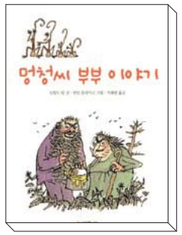


바다탐험대 옥토넛과 함께 신비한 바다 탐험을 시작해요!
『바다탐험대 옥토넛』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바다탐험대 옥토넛》을 그림책으로 담았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 정확한 자료조사에 바탕한 바닷속 생물들의 이야기, 옥토넛들의 흥미진진한 모험담을 맛깔나게 버무려내어 재미와 교육적인 정보, 우정과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교훈까지 전달합니다. 특히 빛 한 점 들지 않는 아주 깜깜한 바다 밑바닥을 탐험하게 된 옥토넛들이 나오는 장면은 올록볼록 반짝반짝, 특수 가공된 야광 페이지가 깊은 바닷속 생물들의 모습을 환상적으로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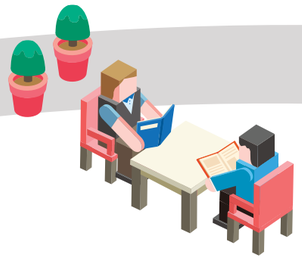
BEST 6

멍청씨 부부이야기

글 로알드 달
시공주니어



'멍청'이라는 이름을 가진 멍청한 노인과 부인이 살고 있었다. 멍청씨는 평생 세수 한 번 하지않은 지저분한 수염투성이였고, 멍청씨 부인도 그에 못지않게 흉악한 몰골이었다. 멍청씨 부부는 잔인하고 더럽고 심술맞다. 부인은 남편에게 지렁이를 먹이고, 남편은 부인을 풍선에 매달아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는 등, 서로가 서로를 괴롭힌다.
그런데 어느 날 멍청씨 부부의 학대에 지친 원숭이 '발라당 쿵'이 멍청씨 부부를 '짜부증'에 걸리게 하는데..



BEST 7

똥떡

글 이춘희, 그림 박지훈
웅진주니어



옛 아이들이 겪은 일과 놀이는 물론, 풍습까지 흥미진진하게 살펴봄으로써 잃어버린 자투리 문화를 찾아내는 「국시꼬랭이 동네」시리즈. 제1권 『똥떡』에서는 똥통에 빠진 아이의 액운을 몰아내기 위해 빚은 '똥떡'을, 재미있는 이야기와 사실적 그림으로 소개한다. 뒷간에서 똥을 누던 준호가 똥통에 빠지고 말았다. 놀란 엄마가 달려와 준호를 꺼내 주었다. 할머니는 똥통에 빠진 아이는 일찍 죽는다면서 똥떡을 빚어 뒷간 귀신한테 대접해야 한다는데….

BEST 8

또 잘못 뽑은 반장

글 이은재, 그림 신민재
주니어김영사

공수레가 보여주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
『또 잘못 뽑은 반장』은 2009년 출간했던 《잘못 뽑은 반장》의 두 번째 이야기. 어쩌다가 반장으로 뽑힌 소심한 소녀 공수린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보여준다. 반장이란 인기와 명예의 자리이기보다는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희생적인 자리임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 타고난 자질이 아닌 성실한 자세만 있다면 누구나 사랑 받는 반장이 될 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

BEST 9

말 잘듣는 약

글 유지은, 그림 박기종
좋은책어린이



대한이와 민국이가 태엽인형이 되어버렸어!
「좋은책어린이 저학년문고」 제19권 『말 잘 듣는 약』. 언제나 신나고 재미있게 놀 생각으로 가득한 개구쟁이 쌍둥이 형제 '강대한'과 '강민국'이, 수상하고 신기한 '말 잘 듣는 약'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담은 일상적 판타지 동화다. 쌍둥이 형제답게 찌릿찌릿 텔레파시가 통하는 대한이와 민국이는 아이들의 천진함과 엉뚱함을 그대로 빼닮고 있다. 아이들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어른들과는 즐거운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BEST 10

엄마가 사랑하는 책벌레

글 김현태, 그림 박영미
아이앤북



책이 싫다구요? 거실을 서재로 바꿔보세요~!
『엄마가 사랑하는 책벌레』는 책을 싫어하는 독서 반장 민호와 문학 소녀였던 엄마가 거실 도서관을 만들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화해를 그린 작품이다. 더 나아가 책을 낯설고 어렵게 느끼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독서의 의미를 짚어주고 있고, 글에 어울리는 익살맞은 그림은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삶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다

– 군포문화재단

글 박찬응 군포문화재단 문화교육본부장



여섯번째 말하는 그림책〈재미난 위로 그림책 작가 서현〉의 전시 이미지

둠벙과 드렁허리 이야기

둠벙을 국어사전엔 웅덩이, 움푹 파여 물이 괴어 있는 곳의 방언 정도로만 풀이하고 있다. 해석이 빈약하다. 보다 정확히 보충 설명을 하자면 우리 조상들이 가뭄에 대비해 논 가장자리에 만든 작은 연못이다. 물이 없을 때는 계곡에서 내려온 물을 머금고 있고, 물이 많을 땐 머금고 있던 물을 뱉어내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이 숨을 쉬는 것 같다. 또한 가을이면 논생물들이 둠벙으로 돌아와 함께 겨울을 나고 함께 봄을 맞는다. 자연 호수가 거의 없는 시골 마을의 둠벙은 수서 생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 많은 생물들이 공생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완전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둠벙 주변엔 풀들과 나무들도 자라고 둠벙안에는 다양한 논생물들이 산다. 개구리밥·마름·옥잠화 등 수생식물과 물매미·물장군·장구애비·게아재비·물자라·잠자리 유충 등 곤충류와 붕어·송사리·버들붕어·미꾸라지·올챙이류 등이 공생하고 있다. 둠벙의 맨 아래쪽엔 드렁허리란 놈도 산다. 드렁허리는 논두렁을 마구 뚫고 다니며 경계를 허물고 허리를 들어 서서 잠을 자거나 뱀이나 미꾸라지와는 달리 뒷걸음도 치고 스스로 암수전환을 한다하니 둠벙과 드렁허리가 보여주는 논생태계는 그 자체로 경이로움이다. 1970년 이후 경지정리사업으로 논이 획일화되면서 둠벙은 저수지로 대치되고 논두렁은 콘크리트 농수로로 대치되고 비료와 농약이 투입되면서 논 생물들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두렁허리 조차도 땅속 깊숙이 숨어 버렸다. 30여년이 지난 2008년 다자간 환경 협약인 람사르 협약의 제10차 총회가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중심으로 논의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연구 속에서 '논 습지 결의안'이 발의됐다. 이후 한국에서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습지인 '둠벙'이 논생태계를 복원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둠벙을 새롭게 조성하기 시작했다. 둠벙이 조성되면서 사라진줄 알았던 드렁허리와 멸종된 줄 알았던 많은 생명들이 돌아왔다. 이러한 둠벙 생태계 복원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역문화생태계 복원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2013년 진행된 파출소가 돌아왔다



지역문화생태계와 도시재생

지역 문화생태계도 삶터와 일터와 놀터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둠벙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 자연환경 속의 모든 생물이 그물처럼 연계되어 있고 독립적이고 완결적인 생명유지의 보존장치를 보유하고 있을 때 살아있는 생태계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생태계'를 이야기할 때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전제로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거대한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용이 서로 밀접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자주 예술생태계니 미술생태계라고 하며 단일한 범위와 범주로 사용하는 것은 오류다. 미꾸라지들만 모아놓은 수족관을 미꾸라지 생태계라 부르지 않는다. 생태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조성된 것이지 일시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 최근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우려스럽다. 도시재생은 도시개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개념임을 상기해야한다. 도시재생은 철저히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지역문화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기여하여야 한다.

돌아온 파출소, 레인보우카페 되다

사설이 좀 길었다. 군포시는 안양·의왕·안산에 인접해있으면서 총면적 30만km에 287,259만 명이 사는 중소도시이다. 면적에 비하면 밀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2013년에 군포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첫해에 문화재단 역량강화사업의 하나로 지역내에 유휴화된 파출소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에는 폐쇄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파출소 부지가 3곳, 치안센터로 부분 활용하는 파출소 3곳을 주목했다.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가와 문화예술단체, 국내외 작가,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해외 작가와 시민작가가 함께 군포경찰서 140m의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기도하고, 작가와 청소년이 함께 금정파출소 외벽을 꾸미고, 지역의 목공예 술가들이 목공소를 운영하며 낡은 버스정류장을 보수하기도 하고 당동 공업지역에 있던 파출소는 직장인 밴드와 직장인 연극반의 연습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군포문화재단이 시작한 '파출소가 돌아왔다'는 이후 전국의 빈파출소를 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의 단초를 제공했다. 현재는 6개의 파출소 중 2



평생학습원의 보충공간을 활용한 '공간사이'

개의 파출소공간이 문화둠벙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공단지역에 위치한 당정파출소는 시의 지원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레인보우 카페'라는 이름으로 베트남·중국·일본 등 외국인 주부 7명이 번갈아 근무하며 각국의 차문화를 소개하는 다문화카페가 되었다. 또한 카페 2층 공간에서는 언어·근로 교육·공예 체험 등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산본재래시장 인근에 있는 파출소의 앞마당은 연극공연공간으로 2층 공간은 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부터 군포의 사례를 전국의 10곳의 파출소에 적용해 기존의 파출소 건물들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일명 '예술 파출소'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말하는 그림책과 그림책 시민모임 '다락'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한 군포시에는 6개의 시립도서관과 35개의 작은 도서관들이 마을 공동체의 거점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01년에 군포시 평생학습원 5층에 개관한 동화나무 어린이도서관이 평생학습원에 개관된 이후 점차로 '상상극장'과 '공간사이', '커뮤니티 마당'이 함께 조성되면서 시민들의 주요한 소통공간이자 학습공간이 되었다. 15여년 동안 원도심 지역사회의 문화둠벙 역할을 해오며 다양한 문화 활동가들을 배출하였다. 자원 활동가들은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화기획자나 문화 활동가로 성장하면서 또 다른 문화생태계를 만들어 나갔다. 즉,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평생학습 네트워크가 많이 만들어 졌다. 2014년 그림책 문화예술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에 60여 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털실뜨개질로 평생학습원로비의 대리석기둥에 옷을 입히기도 했다. 이후 지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며 '그림책시민모임 다락'이 결성되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새로운 시민문화공간 '그림책 다락방'을 탄생시켰다. 이들은 '말하는 그림책'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문화콘서트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말하는 그림책'은 그림책 전문가들과 자생적으로 결성된 그림책 문화예술 활동가들과 문화재단의 일꾼들이 초기 기획과정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행사다. 특히 시민기획단은 말하는 그림책 콘서트에서 입체낭독, 작가와의 대화,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활동가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다. 다같이 즐긴다는 뜻의 '다락'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새로운 문화둠벙으로 자리할 것이다.



책나라 군포에서 예술로 놀고 문화로 꿈꾼다

군포시는 2015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에서 전국 2위의 영예를 얻었다. 이 조사는 전국 230개 시·군·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반적 만족도와 분야별 만족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0점 만점 기준인 전반적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분야별 만족도 조사의 12개 항목 가운데 생활 인프라(2위)·산업(4위)·복지(5위)·교통(5위)·문화(6위)의 5개 항목에서 상위 3% 이내의 점수를 받았다. 이처



'상상극장'에서 공연을 관람중인 아이들



'철쭉축제'의 차없는 거리

럼 도시의 근간이 되는 생활 기반과 문화, 복지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군포시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생활문화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런 기반 위에서 군포문화재단은 '2016 책나라군포 철쭉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철쭉의 아름다움과 책의 인문학적 정신, 그리고 즐거운 춤과 음악이 한자리에 어우러졌다. "예술로 놀고 문화로 꿈꾼다"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문화와 예술로 삶의 터전을 일구어 가는 의미 있는 격문이 되었다.

춤추는 드렁허리와 지역 문화활동가

1997년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된 이래 최근 들어 지역문화재단설립이 크게 늘고 있다. 2016년 현재 지역문화재단 설립현황을 보면 광역 14개, 기초 57개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기본법이 발휘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각각의 지역문화재단은 기존의 문화공간과 시설을 위탁받아 경영해야하는 과제와 지역문화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다. 둠벙이 이 시대에 농촌을 살리는 대안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것처럼 도시 속에 방치된 크고 작은 공간들과 기존 문화공간들을 새로운 문화생태계로 변모시키는 사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역할을 해낼 인적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화재단들은 큰 시설을 짓는 일보다 우선적으로 지역문화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 문화 활동가들은 단순히 교육아카데미를 통해 양성되지 않는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스스로 학습하고 함께 실천하고 연구하고 성찰하며, 지역적 과제를 발견하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습에 참여한 활동가들이 지역적 실천을 어떻게 서로 나누면서 성장할 것인가 하는 환류(feedback process)시스템도 필요하다.

논생물들이 가을이 되면 둠벙으로 돌아와 함께 겨울을 나는 그런 열린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농수로처럼 물만 공급받는 시스템으로는 지역문화 생태계가 살아나지 않음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그 많던 드렁허리는 어디로 갔을까? 드렁허리는 스스로 허리를 곧추세워 경계를 허물고 변화에 도전하고 위험이 감지될 땐 서슴없이 뒷걸음질로 땅속 깊이 숨어버린다. 숨어버린 드렁허리가 돌아와 자유롭게 유영하며 춤추며 삶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 수 있도록 여기 저기 지역마다 다양한 둠벙들이 조성되기를 꿈꾸어 본다.

박찬응 1980년부터 지역문화예술운동에 몸담아 왔다. 2000년부터 석수시장 프로젝트를 통해 삶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일을 해왔다. 현재는 군포문화재단에서 예술진흥본부장을 거쳐 문화교육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철쭉이 만개한 철쭉동산

Story
문화읽기

로맨스라는 판타지, 혹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대한 小考

글 **류수연** 문학평론가, 인하대 교수

3포 세대와 연애서사

오늘의 2030 세대는 경제침체와 함께 역사상 그들의 부모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에 휩싸여 있다. 3포 세대를 넘어 5포, 7포라고까지 언급되는 그들에게, 이미 연애는 가장 먼저 포기해야만 하는 사치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처럼 청춘남녀의 연애가 경제적 이유로 포기되고 있다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속에서 연애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연애를 할 수 없는 시대에 그에 대한 담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묘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연애컨설턴트라는 직업이 등장하고, '모태솔로'와 '연애고자'라는 자조적인 비아냥거림이 일상적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연애가 불가능한 시대에 걸맞도록 이제 연애도 하나의 '스펙'이 되어버린 것이다.

미디어 속에서 넘쳐나는 연애서사는 이러한 모순적인 현실의 반영물이다. TV드라마는 그 장르를 불문하고 연애라는 양념 없이 존재하지 못하고,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매일 연재되는 로맨스 관련 콘텐츠만 해도 100여 편을 훌쩍 뛰어넘는다. 하루하루의 삶에 치여 가장 먼저 연애를 포기한다는 청년들의 현실과는 달리, 대중적인 콘텐츠 속에서는 연애만이 인생 목표인 듯 달려가는 인물들이 홍수를 이룬다. 현실에서는 이미 '불능'이 선언되어버린 '남녀의 낭만적 사랑'이 판타지가 되어 넘실거리는 것이다.

가장 환상적인, 그래서 현실적인

2016년 전반기에 가장 'hot'한 콘텐츠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태양의 후예〉일 것이다. 케이블TV의 약진과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까지, 미디어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공중파 TV가 침체일로를 겪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중파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많은 미니시리즈들이 흥행저조를 보이면서, TV드라마의 부진은 더 심각하였다. 따라서 마의 시청률 30%를 넘어선 것도 모자라 40%에 육박하는 애청자를 보유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인기와 그에 따른 열광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hot'이 결코 'new'의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이 콘텐츠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어느덧 낯설어져버린 그 무엇을 다루고 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드라마에서 느껴지는 익숙함이다.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김은숙 작가는 그의 실질적 데뷔작인 〈파리의 연인〉(2004)부터 〈온에어〉(2008), 〈시크릿 가든〉(2010), 〈상속자들〉(2013), 〈태양의 후예〉(2016)까지 안방을 사로잡은 대표적인 히트작을 집필하였다. '로맨스'를 중점에 둔 만큼 남녀의 애정이 메인 스토리였지만, 김은숙 작가의 작품에는 그만의 독특한 공식이 있다.

그는 이미 한국드라마의 한 전형이 되어버린 판타지에 가까운 남녀의 사랑을 낭만적으로 담아낸다. 재벌과 일반인의 우연한 만남이라는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가 김은숙만의 개연성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만남이 일상적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자신의 일상적 공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여행지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계층적인 차이에도 남녀가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필연을 만들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로맨스가 '판타지'임을 잊지 않는 것은 김은숙 작품이 가진 또 다른 미덕이기도 하다. 모든 스토리를 가상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시청자의 뭇매를 맞았던 〈파리의 연인〉의 결말은 다소 과도했지만, 남녀의 신체가 바뀌는 〈시크릿 가든〉의 판타지를 제외하더라도 김은숙의 작품 곳곳에는 두 남녀의 필연적 사랑을 엮어주는 환상적인 장치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판타지임을 은연중에 각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때문일까? 김은숙의 로맨틱 코미디는 비현실적으로 극단에 놓인 남녀의 만남을 다루고 있지만, 동시에 대단히 현실적인 연애를 담아내고 있다. 분명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를 다루고 있지만, 적어도 김은숙 작품 속에 등장하는 그녀들은 마냥 착하거나 수동적이지 않다. 백마 탄 왕자님들도 한없이 매력적이지만은 않다. 김은숙의 신데렐라들은 선하지만 까칠하고 자격지심에 가까운 자존심으로 자신을 갉아먹는다. 또한 왕자들은 어떠한가? 부유하지만 이기적이고 어딘지 모르게 사회성이 결여된 인물들이다. 남녀 모두 경제적 조건만 다를 뿐, 어딘가 한군데씩은 비어있는 인물들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자신의 상황을 속이거나 감추지 않는다. 그 'cool'한 정직함이야말로 시청자들이 김은숙표 로맨스를 현실적이고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다.

그런데 〈태양의 후예〉는 김은숙 작가에게 부여된 이러한 익숙함을 충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비껴나간다. 과거의 익숙한 패턴을 반복했다면 이 작품에 따르는 이러한 열광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절정이자 변주였던 전작 〈상속자들〉은 김은숙표 로맨스의 정점이었지만, 바로 그 때문에 이제 그 추락이 예감되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상속자들〉은 가장 진부했고, 그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던 작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태양의 후예〉는 어느 정도는 예상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익숙함을 또 다른 각도로 비트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로맨스가 동시대의 위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문제는 그 위안이 우리에게 다가서는 방식이다.

사라져버린 것들의 회복, 혹은 또 다른 환상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의사와 누군가에게 총구를 겨누어야 하는 군인. 이 드라마틱한 대척점에 서 있는 두 남녀의 어긋난 인연을 '우르크'라는 가상의 분쟁 지역에서 운명적으로 마주하게 한 〈태양의 후예〉는 자칫 군국주의에 대한 예찬으로까지 오인될 만큼 파병군인과 파병지에서의 활동이주를 이룬 작품이었다. 더구나 주인공 유시진 대위가 대변하는 파병군인으로서의 당위는 양날의 위험을 가진 것이었다. '평화를 지키는 전쟁'이라는 그의 말은 베트남 참전 당시 미국이 내세웠던 '평화를 위한 침략'이라는 슬로건의 다른 버전처럼 느껴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가 낡고 누추한 군국주의로 화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말하는 '평화'가 권력이라는 괴물이 아닌 진짜 국가를 이루는 한명 한명의 개인들에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이다. 두 주인공이 만난 순간, 유시진의 임무는 강모연의 삶을 지키는 것이 되고, 강모연의 삶 역시 유시진을 살리는 사명이 되어버린다. 자기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곧 자신과 사랑하는 이를 위한 '최선'이 된다는 것. 사실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최고의 환상은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 국가가 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국가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 같은 새끼도 위험에 처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해내는 게 국가라고. 군인인 나한테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라고 국가가 준 임무는 없으니깐."

더 나아가 지진으로 인해 붕괴된 발전소에서 인명구조보다 서류봉투에 더 집착하는(사실은 은닉한 다이아몬드) 관리소장에게 분노한 주인공 유시진의 대사는 이 드라마를 향한 열광의 정체를 보여준다. 끊임없이 애국심을 강요받았지만, 국가 아니 보다 엄밀히 말하면 국가라는 가면을 쓴 권력에게 늘 버림받아야 했던 지난 역사를 떠올려 보라. 최근 우리 사회를 절망하게 만든 세월호 사건도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사실 권력이나 경제논리가 앞에서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이 얼마나 헌신짝처럼 버려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현실이 아니었던가? 따라서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라고 국가가 준 임무는 없다."는 주인공 유시진의 대사는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환상의 실체가 우리가 가져본 적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다고 여기는 '국가' 그 자체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일종의 향수를 그려낸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가져본 적 없는 대상을 향한 것이다. 현실 속에서는 더 이상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낭만적 사랑과 지구 끝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는 헌신적인 국가. 가져본 적도 가질 수도 없기에 더 간절한 그 '무엇'이 오늘의 우리를 위안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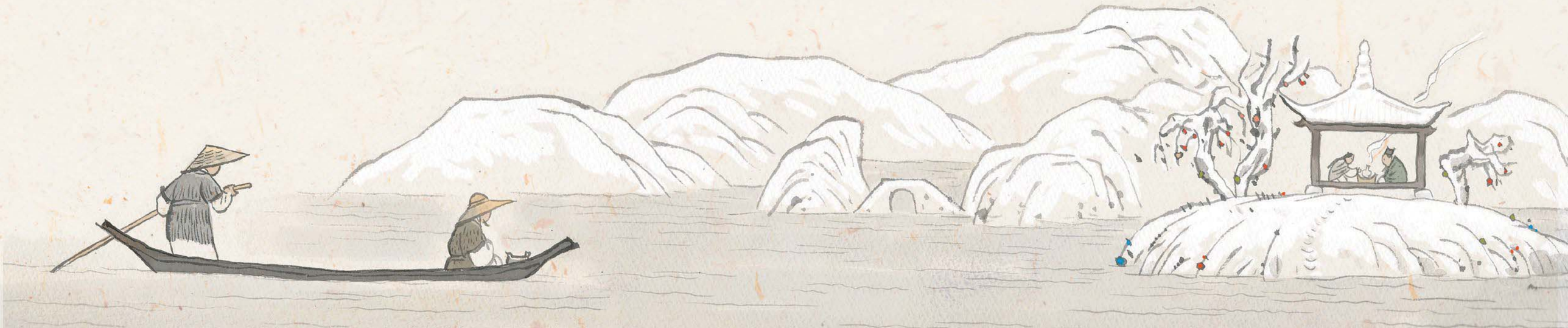
류수연 1977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지금은 경기도 부천에서 살고 있다. 2013년 창비신인평론상으로 등단하여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대학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뷰파인더 위의 경성』, 평론으로 『통각의 회복, '이름'의 기원을 재구성하다』 등이 있다.

Story
잡동사니
고전 인문학

당신처럼 어리석은 이가 또 있구려

글 황미숙 '문명고전작은도서관' 지기 그림 김병하

항주를 방문했던 그해 겨울, 저녁 무렵이 다 되어서 세 개의 달을 보아야 한다며 우리 일행은 서호를 꾸역꾸역 찾아갔다. 장대(張岱, 1597~1680)의 '서호십경(西湖十景)'중에서 '삼담인월(三潭印月)'을 구경하려고 찾아간 서호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날씨는 꾸물거리고 바람조차 불어 더욱 스산하게 추웠다. 결국 눈이 내렸다. 그곳에 더 머물 수 없어서 이내 돌아 나오며 눈 구경이라도 하였으니 다행이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소리 없이 쌓이는 눈을 맞아가며 일행 중에 한 명이 장대의 '호심정(湖心亭) 눈 구경' 이야기를 해주었다.



명나라 말기의 장대는 겨울 서호의 풍광에 대한 감흥을 '호심정간설(湖心亭看雪)'에 담고 있다.

숭정 5년 12월에 나는 서호에 있었다. 큰 눈이 사흘이나 퍼부어 호중에는 사람의 발자취도 새소리도 다 사라졌다.
그날 아침에 나는 작은 배를 하나 잡아타고 털옷에 화롯불을 안고 홀로 호심정(湖心亭)의 눈을 보러 갔다.
빙화(氷花)가 하얗게 서려 하늘도, 구름도, 산도, 물도 위아래 모두가 흰색이었다.
호수 위 그림자는 오직 한 줄기 기다란 흔적만 남기고 호심정은 한 점으로 내 배와 같이 겨자씨 같았다.
배 안에는 두 사람인 듯 세 사람인 듯 이미 한 알처럼 보였는데, 정자 위에 오르니 두 사람이 이미 담요를 펼쳐놓고 마주 앉아 있었다.
동자가 술을 데우는데 화로 위의 주전자는 막 끓고 있었다.
나를 보자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호수 가운데에서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단말인가!"
나를 잡아끌어 함께 술을 마셨다.
나는 큰 잔으로 석 잔을 마시고 그들과 헤어졌다.
그의 이름을 물었더니, 금릉(金陵)사람으로, 이곳을 방문하였단다.
돌아와 배를 내릴 즈음에, 사공이 중얼거리기를 "당신이 어리석다고 말을 못 하였더니, 당신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었네요."

어찌하였든 우리는 장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서호의 풍광을 맞이했던 것이라며 한마디씩 보태었다. 돌아오면서도 서호에 대해 저마다 알고 있는 이야기로 차안은 훈훈했다. 백거이가 어떠했다느니, 소동파가 어떠했다느니, 항주 미인 서시를 기념하는 의미로 '서자호'라고 불리기도 한다며 일행은 이내 흥취가 올라 그날 밤은 모두 시인이라도 된 듯하였다. 밤새도록 독한 술을 앞에 놓고 서호를 칭송하는 시를 써야 한다느니 한 구절씩 읊어야 한다느니 주거니 받거니 하였다. 다음날의 공식 일정에 대한 관심은 이미 물 건너 가버리고 말았다.

빡빡한 일정을 밀쳐두고 서호를 찾아갔던 일행들은 지금도 만날 때 마다 그날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다시 가서 이번에는 꼭 세 개의 달을 보고 와야 한다며 벼르기만 한다. 모두들 현실적으로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인데도 말이

다. 그 때 졸지에 한나절의 일탈을 맛본 즐거움은 오래도록 우리들을 힘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벼슬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마다 도연명(365~427)의 〈귀거래사〉의 한 구절을 빗대어 글을 적고 있다. 도연명에게는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고향의 순채국과 농어회가 그리워서 떠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는 〈음주〉 20수중에 제19수에서 "지난날 오랜 굶주림에 시달린 끝에, 쟁기 내던지고 벼슬살이 흉내 냈다."라고 하였다. 애초에 자신이 관직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오랜 굶주림을 견디기 어려워서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았다. 어쩌겠는가. 번연히 겪어야할 고난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얻은 것이 없다고 여긴 그는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천년을 내려오는 책 두루 펼쳐보며 / 歷覽千載書
때때로 옛 어진 이들을 만난다. / 時時見遺烈
높은 지조를 따를 수는 없겠지만 / 高操非所攀
그런대로 곤궁 속의 굳은 절조는 배웠다. / 謬得固窮節
평진후(平津侯)와 같이 못될 바에야 / 平津苟不由
한가하게 사는 것이 졸렬하다 하겠는가? / 捿遲詎爲拙
한마디 말 밖에다 뜻을 부치지만/ 寄意一言外
이내 마음 누가 분별하리오. / 玆契誰能別
〈계묘년 경원(敬遠)에게 보내는 시〉 – 도연명

그래서 우리는 도연명을 핑계로 가끔씩 꿈 꿀 수 있나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이룬 것이 없어도 '곤궁 속의 굳은 절조'라며 꿈만 꾸나보다. 이와 같이 가난한 지식인이 불의의 시대에 처해 이상과 현실의 모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뇌하면서도 끝내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바를 실천한 그를 추앙하는 것이리라. 어쩌면 그의 뼈아픈 일상은 못 본 체하며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고픈 마음에 그를 동경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전원생활에 향한 마음만은 나도 동감이다.

우리나라 순창 남산에는 조선 집현전 학사로 널리 알려진 보한재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동생 신말주(申末舟, 1429~1503)에 의해 457년(세조 2년)에 세워진 '귀래정(歸來亭)'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건물은 1974년에 다시 세웠다. 조선의 정자를 이야기 할 때 '귀래정'을 빼놓을 수 없다. 신말주의 후손인 신경준(申景濬, 1712~1781) 등이 대대로 뿌리 내리면 살았던 세거지에 오래된 고가는 지금도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 적송 숲 가운데 자리한 정자는 한여름의 방문임에도 그 서늘함을 자랑하였다.

당시 정자를 짓고 그 이름을 정하려 할 때, 서거정이 '귀래정(歸來亭)'으로 편액하기를 청하고는 '귀거래(歸去來)'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귀거래'라는 것은 진(晉)나라의 징사(徵士) 도잠(陶潛)이 쓴 말이다. 선배가 그것을 해석하기를, '그 벼슬을 돌려주고 그 직임을 버리고 그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대개 옛사람으로서 벼슬길에 나아가거나 벼슬을 버리고 들어앉기를 제대로 한 이로는 도잠만 한 이가 없다. 후대의 뜻있는 선비라면 누군들 어려서는 배우고 장성해서는 시행하고 늙으면 물러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하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한번 공명에 그 마음이 오염되고 처자(妻子)에 그 사욕이 얽매여, 돌아가야 하는데도 돌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에 즐비하다. 그리하여 드디어는 산림에 사람이 없다는 비난이 있게 되었다. 아! 비록 돌아갈 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야 할 때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참으로 옳다고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돌아갈 데가 있는데도 돌아가야 할 때에 돌아가지 않는 자라면 다시 무엇을 논하랴."라고 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서슴없이 돌아갈 수 있으려는가.

고령 신씨 가문의 문집인 '영천세승'의 번역을 맡아 함께 공부하며, 귀래정을 방문하고자 하던 차에 마침 스승님 성묘를 핑계로 정자를 찾았던 것이다. 송골하게 쓰인 '귀래정' 현판 아래 마루에 앉아서 문집 번역에 대한 어려움과 공부의 즐거움을 나누었다. 무엇 한 가지에 빠져보지 않고서야 어찌 삶을 이야기 하겠는가. 죽는 날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 없으면서 어찌 한 평생을 살았노라고 하겠는가.

항주의 서호를 다시 찾아 가는 날, 장대가 '오이인전서(五異人傳序)'에서 제안하는 사람과의 사귐에 대한 조언을 잊지 않으련다. "사람이 벽(癖)이 없으면 사귈 것이 없다(人無癖 不可與交). 깊은 정이 없는 까닭이다(以其無深情也). 사람이 흠[疵]이 없으면 사귈 것이 못 된다(人無疵 不可與交). 참된 기운이 없기 때문이다(以其無眞氣也)." 이라는 것을 말이다.

장대가 권하는 바는 무엔가 한 가지 성취하고자 하는 이들이 보여주는 처세의 한 모습이리라. 기실 처세라고도 할 수 없는 모양새이다. 아마도 세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십상일 것이다. 그래도 자신의 선택한 것을 감내해야 하리라. 자기 자신이 하는 바에 대해 오로지 집중하지 않는다면 성취를 어찌 이룰 수 있을까 싶다. 끊임없는 노력과 정진만이 성취를 얻는 과정에서 버티는 힘이 될 것이다. 지난한 굴곡의 과정이 없는 성취라면 어찌 소중하다고 하겠는가. 아직도 갈 길은 멀고 넘어서야 할 능선이 가파르다고 할지라도 한걸음씩 옮기다 보면 그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돌아 갈 곳이 없더라도 기탄없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앞서 간 이들의 삶과 생각과 행동에서 내가 가야하는 길의 나침판을 찾는다. 기준을 찾고 뜻을 정하고 소신대로 행동하고자 한다. 매번 시행착오를 범하기도 하고 다른 길을 들어서서 곤혹을 치르기도 하지만 여전히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다른 이에게는 불편함을 끼치지 않으며, 기쁜 일이 없어도 스스로의 즐거움은 그만둘 수가 없다. 내 마음 속에서 울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자 할 뿐이다.

황미숙 수원 교동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중앙대학교 대학원 역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영동시장 귀퉁이에서 콩알만한 '문명고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며, 한문고전 번역과 글 쓰는 일 그리고 역사·한문고전을 가르치고 있다. 수원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의 삶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정리하는 아카이브[기록보관]에 관심을 갖고 있다.



Story
책 나들이

누가 이 시대를 노래할 수 있는가?

글 김희만 역사학자·문학박사



서영처, 『노래의 시대』

이 글의 지은이는 에필로그에서 "정신적 풍요보다 물질적 풍요를 우선시하면서 우리 사회는 소득이 낮고 가난했던 때보다 더 불안하고 각박해졌다. 자본이 지배하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위해 시간과 정열을 바치며 산다. 지나친 경쟁과 스트레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회를 만들어냈고 우리는 고스란히 그 폐해 속을 허우적거리며 허기진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나면 정신적 행복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은 진정한 풍요를 위해 노래가 주는 기쁨과 유대할 시간"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요즈음 각 방송사에서 '노래의 시대'를 연출하고 있다. 수많은 젊은 청춘들이 매료되고 청춘이 지난 과거의 '청춘맨(우먼)'들도 열광하면서 그야말로 노래를 벗 삼아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있다. 열창하는 가수들과 그를 좇아 화려한 데뷔를 꿈꾸는 이 시대의 젊음이 그렇게 하루하루 저물어가고 있다. 과연 '이 시대를 노래할 수 있는가?'

지나간 시대의 노래들은 대부분 가사의 의미에 무게를 싣고, 가락과 곡조 또한 그 시대를 말해주는 문장이었음에 틀림없다. 즉, 가사의 뜻과 곡조가 어우러져 한 시대를 살아온 대중의 정서와 상상력을 보여주었으며 그 시대의 노고와 감동을 고스란히 전해주었다. 특히 외국 민요는 우리에게 문화적 영향력을 미친 나라의 노래가 주를 이루었지만 낯설지 않았으며, 국적과 민족을 떠나 인류 공통의 요소를 담아내어 우리의 노래가 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는 편이 속 시원하다.

이 책은 유행가에서 가곡, 동요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지식고하를 막론하고 전 국민에게 널리 불리어지던 노래들을 고루 소개하고 있다. 대중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는 주로 사랑과 이별, 꿈과 이상, 추억과 그리움을 다루는 노래들이 주류이다.

이 책에서 노래한 레퍼토리는 크게 3장으로 이루어졌다. 낭만적인 시 구절을 떠올리는 제목으로 '사랑했던 그때 그 순간', '산 위로 피어오르는 흰 구름', '떠돌며 생각한다, 그대를' 등이 가사책에 버젓이 소개되어 있다. 음식점의 메뉴판에서 색다른 음식이름을 보면 그 자체 흥미를 유발하듯이 이 책의 레퍼토리도 맛있는 요리의 대명사로 다가온다.

〈고향의 봄〉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부르는 동요로 1926년 이원수의 시에 홍난파가 곡을 붙여 불렀던 노래다. 사실 1920년대는 창작 동요들이 쏟아져 나온 시기로 이러한 현상은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전혀 없던 척박한 현실에 대한 반성이었다. 1910년에서 1918년에 이르는 일제의 대규모 토지조사사업으로 농민들은 급격하게 몰락하였고, 1920년부터 산미증식계획으로 농촌은 거의 황폐화되었다. 식민권력의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수탈 아래 먹고 살 길을 찾아 일본, 만주, 연해주 등으로 떠나는 이주민의 수는 거의 100만에 달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실의 정서는 시대상황과 민중의 현실을 직접 반영하는 것이었다.

〈눈물 젖은 두만강〉은 1936년 이시우 작곡, 김정구 노래로 발매되었는데, 1930년대 어느 여름날 극단 예원좌가 두만강 유역의 도문에서 공연을 마치고 숙소에 묵고 있을 때였다. 이들은 피곤해서 곯아떨어졌지만 밤새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여자의 울음소리에 깊은 잠을 잘 수 없었는데, 사연인즉, 독립군으로 출정한 남편의 소식을 수소문하러 강을 건너온 아내가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슬픔과 절망으로 오열하였다는 것이다. 이 노래는 단순한 시대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긴 처절한 망국의 한을 노래한 것이다.

해방 전후와 1950~1960년대에 나왔던 대중가요에는 마도로스와 항구를 소재로 하는 노래가 많았다고 한다. 거기에는 새로운 항구를 찾아 모험을 떠나는 멋쟁이 마도로스의 이야기가 펼쳐지며, 항구마다 새로운 여성들과 만나 사랑하고 이별하는 이야기들은 그 시대 남성들의 멋이고 풍류였다는 것이다.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노래방의 인기 차트에 올라가 있는데,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도 『이기적 유전자』에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고 비유한 바, "그 정자는 수백만의 거대한 함대를 이루는 작은 배들 가운데 한 척이었고, 배들은 일제히 당신의 어머니 쪽으로 노를 저어 들어갔다. 이 특별한 정자는 당신 어머니의 난자 중 하나에 도달한 소형 선대 중 유일한 하나의 정자였다. 이것이 당신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이다."라고 설파하고 있다.

이미자의 노래 〈동백아가씨〉는 1964년 당대 최고의 배우 신성일과 엄앵란이 주연을 한 영화 〈동백아가씨〉를 위해 급조한 노래였다. 이 노래는 35주 동안 가요 베스트 1위를 차지하였는데, 1960년대는 6·25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던 시절이었다. 미국의 농산물 원조로 끼니를 연명하던 비참한 시대에 〈동백아가씨〉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흔하고 신파적인 줄거리를 통해 전쟁의 후유증과 가난으로 한이 많은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었다.

흔히 1970년대 대중가요는 김민기의 〈아침 이슬〉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노래는 이전까지 나왔던 트로트나 포크송 위주의 대중가요 양식을 확연하게 바꾸어놓았다. 상업적이고 상투적인 가사에서 창의적이고 진지한 가사로 진부하거나 평범한 멜로디에서 시적 이미지를 음악화한 서정적인 가곡 풍으로 리듬과 선율 양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아침 이슬〉은 분명 말초적이고 소박한 수준에 머물고 있던 기존의 가요를 보다 지적이고 미학적인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1980년대는 대학생들이 기타를 치며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당시 정치 상황을 노출시키며 결연한 의지나 비장한 죽음 같은 무거운 명제들을 환기시켰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김종찬의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노래가 88올림픽의 분위기를 타고 커다란 반응을 얻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직장이 토요일 오전 근무를 했다. 이의 반영이다. 이제는 대부분의 직장이 주5일 근무라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새로운 유행어가 생겼다. 세태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아파트는 1980년대 대중의 의식과 세계를 지배하는 키워드였다. 윤수일의 〈아파트〉는 당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최신의 노래이자 최고의 노래였다. 이 노래는 딩동! 하는 벨소리로 시작해서 콘크리트 회색빛 아파트를 고향으로 삼은 도시인의 감성을 보여준다. 또한 도시인의 영혼 없는 사랑을 노래한다. 그리고 싸이의 노래 〈강남 스타일〉은 강남의 풍요로움을 배경으로 한다. 이 노래는 강남의 좀 놀 줄 아는 남녀를 보여준다. 논다는 것은 누릴 줄 안다는 말이다. 부모 세대가 축적해놓은 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강남의 신세대들을 보여준다. 강남의 풍요로움은 아파트 개발에서 비롯되었다. 물질적 풍요 속의 정신적 빈곤을 〈강남 스타일〉은 노래한다.

쉽게 골라서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노래는 열려 있는 소통의 장르이다. 빈부나 귀천과 상관없이 노래는 모든 이들에게 햇살처럼 골고루 혜택을 베풀어줄 수 있다. 슬픔과 괴로움, 갈등과 번민도 노래 속에 흘러갔다. 노래는 추억을 먹고산다. 노래는 아름다운 과거를 불러와 현재를 상기시킨다. 노래는 흩어져 있는 마음을 모으고 정화시킨다. 노래는 지루하고 단조로운 삶의 순간마저도 빛나게 만든다. 그런 노래들이 지속되길 바란다. 서로 경쟁하는 노래가 아니라,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가 필요하다.

'이 시대를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이 시대를 노래할 수 있는가?'

김희만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으며, 이를 대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사의 이해』, 『화랑세기를 다시 본다』 등의 공저서와 「수여선의 개통과 사회변화」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최근 인터넷신문 뉴스피크에 '헌책방의 인문학'이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격주로 글을 연재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다.

재단소식

Suwon Cultural Foundation
NEWS

김승국 대표이사 취임

김승국 수원문화재단 제 4대 신임 대표이사가 지난 4월 11일 취임했다. 김 대표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올해 초 "산하기관장은 각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는 외부인 등 개방형으로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이루어진 첫 인사이다.

김 대표는 '문화관광부 전통예술정책수립 TF위원', 서울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수립에 전문가로서 참여해온 문화예술정책전문가이자 '문화체육관광부 한-EU문화협력위원회' 국내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문화예술전문가이다. 또한 2013년에는 노원탈축제추진위원장으로서 '노원탈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여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는 축제전문가이기도 하다. 김대표는 서울시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 직을 거쳐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상임부회장직으로서 전국 200여개의 문예회관의 공연·전시·문화예술교육·축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친 예술경영 및 행정 전문가이다.

김 대표는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130만 수원시를 대표할 통합적인 문화도시 정책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수원문화재단은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수원시민들의 삶뿐만 아니라 수원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에게도 수원의 저력 있는 문화를 드러내보임으로써 수원에 대한 인식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향후 경기도와 중앙 정부와의 능동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참여예술의 활성화, 수원을 대표할 전문 예술인 육성, 문화 공간 활성화, 문화복지 확대, 도시를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원전통문화관, 『원행을묘정리의궤』 속 상차림 특별기획전



재단은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오는 10월 31일까지 '정조, 원행을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 속 상차림을 맞이하다.' 특별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정조대왕의 화성 8일간의 능행차가 기록되어 있는 『원행을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를 토대로 궁중음식 상차림을 선보인다. 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 기능보유자인 한복려 원장의 자문 및 감수를 받아 정조대왕과 혜경궁에게 올려진 상차림을 재현한다. 혜경궁이 받았던 아침 수라상과 주다소반과, 정조대왕이 베풀었던 양로연의 상차림을 재현한 모형 3점과 정조대왕의 아침 수라상, 혜경궁의 소별미상과 미음상, 내·외빈, 궁인, 여령·악공, 군인 등이 받았던 상차림 사진 8점을 전시한다. 이를 통해 정조시대 궁중에서 만들어 음식과 왕이 받았던 수라상부터 백성에게 베풀었던 상까지 다양한 신분별 상차림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정조시대의 궁중음식뿐만 아니라 8일간의 행차동안 어머니를 생각하는 정조의 지극한 효심과 백성을 향한 애민정신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문화홍보단 3기 발대…글로벌 수원 알림이 역할 시작!



재단은 지난 4월 16일 '외국인 대학생 수원문화홍보단' 3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계인들에게 수원의 문화와 관광을 알리기 위한 첫 테이프를 끊었다.

수원문화재단 영상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는 중국·베트남·우즈베키스탄·말레이시아·싱가폴 등 9개국(20명)에서 온 국내 거주 외국인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단원 위촉장과 명찰을 수여했다.

이어 홍보단원들은 '2016 화성행궁 상설한마당 개막공연'을 관람한 후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의 혁신적인 리더십과 실학사상의 산실인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을 관람했다.

특히 수원화성의 명물인 화성열차를 탑승해 주요 관광 코스를 답사하고 연무대에서 국궁체험을 끝으로 첫 번째 투어를 성료했다. 홍보단원들은 앞으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비롯한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그 결과물을 SNS를 통해 모국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한다.

수원화성 '달빛동행' 진행

재단은 5월~10월 음력 보름 전후 20회 동안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달빛 야경을 감상하고 화성행궁에서 펼쳐지는 전통연희를 즐기는 대표 야간관람 프로그램 '수원화성 달빛동행'을 운영한다.

수원화성 달빛동행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아름다운 야경을 온전히 감상하도록 기획된 고품격 야간관람 프로그램으로, 2014년 시작 이래 매진기록을 이어가며 수원시를 대표하는 야간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며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더욱 품격 있는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된 수원화성 달빛동행은 행사를 위해 사전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달빛지기)가 수원화성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화성행궁내 유여택에서 다과와 함께 경기도립예술단(국악단, 무용단)의 전통공연을 감상하며 도심 속 고궁에서 마음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달빛동행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야간 화성열차는 달빛을 품어 황금색으로 빛나는 웅장한 성곽의 모습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제20회 수원 연극축제 성료

지난 5월 5일부터 8일까지 "달콤한 연극, 신나는 수원"이라는 주제로 수원연극축제가 펼쳐졌다. 초대형 야외 거리극 작품인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그룹 푸하(Gropu Puja)'의 공중 퍼포먼스인 〈카오스모스(K@osmos)〉와 프랑스 '퀴담(Compagnie des Quidams)'의 〈용감한 말(Fiers à Cheval)〉은 물론 5개국 6개의 해외작품과 17개의 국내작품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수원 인근 12개 연기학과 관련 대학교가 참가하는 대학연극페스티벌이 축제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수원시민들의 연극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민희곡낭독 4편과 수원생활연극인들의 연극 10편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가꿔가는 축제로 풍성함을 더했다.

2016 경기수원항공과학전 개최



경기수원항공과학전이 지난 5월 7일 경기도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개막했다. 연휴 마지막 날인 8일까지 이어진 이번 항공전은 공군 군악대·의장대 공연과 개막 선포,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의 에어쇼, 육군특전사 고공강하팀의 강하시범 등으로 화려한 막을 열었다.

블랙이글의 전투기 T-50 8대가 굉음을 내며 하늘에 태극 문양을 수놓자 관람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항공전은 그동안 경기도 등의 주최로 안산시 사동에서 열리다가 지난해부터 수원으로 장소를 옮겼다. 수원시와 제10전투비행단 주최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항공전에는 전투기 등 항공기 50여대와 농진청, 산림청 등 정부 산하기관 및 협회 등 23곳에서 보유한 로봇, 드론 등 첨단IT기기 100여대가 전시됐다. 블랙이글의 에어쇼와 공군의 국산 훈련기 KT-1, T-50 시범비행, 한서대학교 곡예비행팀의 곡예비행이 이어졌고, 공군 수송기 C-130, 헬기 CH-47 각 1대와 항공과가 있는 한서대·교통대·청주대가 보유한 항공기 4대 등이 관람객 체험비행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공군군악대·의장대, 육군 군악대·의장대, 특전사 특공무술 시범, 무예24기의 공연도 항공전 기간 펼쳐져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in 수원



재단에서 주관한 아시아 최대의 뷰티·문화축제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이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아름다운 성곽의 도시 수원에서 지난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화려한 축제의 장을 펼쳤다. 총 12개 세부행사로 구성된 이번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 해를 빛낸 아시아 25개국 최고의 모델들과 아시아스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상하는 '2016 아시아 모델 어워즈', 아시아 25개국의 국가별 예선대회를 거친 신인모델들의 세계 톱 모델을 향한 등용문 '2016 아시아 뉴 스타 모델 콘테스트'와'아시아 뉴 스타 모델 부트캠프'등이 있었다. 특히 '아시아 탑 모델과 함께하는 워킹데이', 수원 화성 창룡문에서 펼쳐진 '아시아 전통복 패션쇼' 등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참여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www.swcf.or.kr

Suwon Sightseeing Art Culture

문화예술 기부, 아름답고 가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의 손으로 수원문화예술의 싹을 틔어주세요.

문화예술기부 프로젝트 싹ssac

싹ssac 이란, Suwon Sightseeing, Art, Culture를 의미하며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관광의 '싹ssac'을 틔우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당신의 기부가 수원의 문화예술관광을 풍요롭게 합니다.

싹ssac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문화·예술·관광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도시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싹ssac을 통한 기부와 관심은 수원 문화예술관광의 꽃을 피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문화예술기부, 싹ssac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ARS기부 060-700-1199

특화당 2,000원 기부
※ARS기부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안됩니다.

문의

수원문화재단 기획홍보팀
031-290-3525
www.swcf.or.kr

싹ssac 틔움 회원이 되시면

주체	구분	후원액	특별예우	기본예우
개인	씨앗 회원 (연간회원)	月 3,000원 이상 年 30,000원 이상		• 감사카드 발송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월간 뉴스레터 발송 • 인인화락 명단 게재 • 인인화락 발송
	물회원 (연간회원)	月 10,000원 이상 年 100,000원 이상	• 年4회 *문화꾸러미발송	
기업	햇살 회원	1,000,000원 이상	• 인인화락 광고 게재 • 기획공연 티켓제공 • 기부자 네이밍 지정 • 기업 임직원을 위한 문화행사 기획	

* 문화꾸러미란? 재단에서 기획하는 공연, 제작하는 기념품 등이 들어있는 선물상자입니다.